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3월 2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4호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민간 문화재 많은데 지원은 국가 소유만 형평성 맞는 지원을

조계종, 각 대선후보에 불교 · 문화 정책 제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대선후보들에게 불교 · 문화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0일 국회를 방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 · 문화 정책 제안〉 제하의 자료집을 전달했다. 자료집은 △문화 · 자연유산 정책 개선 △화쟁과 치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실현 △불교계 현안 등 총 3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 중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조계종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 분야서는 민간문화재와 국유문화재의 예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비율은 민간문화재가 국유문화재보다 많지만 정부 예산정책은 국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브리핑을 맡은 김용구 기획차장은 "현재 문화재정 업무는 국가재산 성격인 궁궐 · 왕릉 · 유적관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 뒤 문화재 소유별 지원예산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대표적 예산 편중사례로 2017년도 정부예산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유 문화재 중 궁궐 · 왕릉 · 유적 114건에 배정된 총 예산은 1066억3100만원이다. 1건당 9억3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조계종 소유 건축 · 불상 · 탱화 · 사적 등 735건에 배정된 총 예산은 486억6000만원으로 1건당 약 6600만원 수준이다.

김 차장은 "궁궐, 왕릉 등은 면단위로 관리되지만 그 밖의 문화재는 점단위로 관리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민간문화재들은 무너지거나 훼손됐을 때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즉 국유문화재는 규모가 크고 보존을 위한 상시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간 소유는 각 소유권자가 관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계종은 부처별로 산재된 문화재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적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재 부처 등 조직개편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서도 자승 스님이 한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화재청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조계종은 민간문화재를 전담하고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산림청 · 문화재청 등 유사업무 및 중복기능을 통합할 것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외에도 국가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할 것과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문화재 도난 및 멸실 예방을 위한 시효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문화재 지원 강화
중복규제법령 폐지 등
문화정책 제안 쏟아내

차별금지법 제정 포함
대사회적 관련 목소리도

불교계 현안으로는 △법률개정을 통한 10.27법난 피해 단체 '배상'과 기념재단 설립 명시 △현대차 초고층 신사옥 건축계획 재검토 △종교 관련 정책에 대한 종교계 사전 의견 수렴 등이 제시됐다. 또한 평등한 사회 실현 분야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화해와 평등위원회(가칭)' 설치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명박 정부 '사회통합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잇는 조직으로서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김 차장은 "평상시 종단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각 정당의 대선공약 준비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단도 현재 제안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장엄등은 2014년 4월 16일 불을 밝혔던 미륵사지석탑등으로 앞에는 세월호 추모 리본 등이 설치됐다. 사진=윤호섭 기자

아픔 넘어선 화합의 法燈 밝히다

봉축위원회, 12일 광화문 광장서 봉축 점등식

아픔과 갈등이 상존했던 광화문광장에 치유와 화합의 법등(法燈)이 불을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불기 2561년 광화문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불교계 종단 지도자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광장을 밝힌 봉축장엄등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던 탑등이다. 이번에는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오고, 대통령 탄핵정국을 보낸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맞춰 모두가 고귀한 존재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화합이라는 의의가 담겼다.

실제 미륵사지석탑등 앞에는 세월호 노란 리본을 형상화한 등이 설치됐으며, 점등식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화합을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생명의 존엄을 쉼 없이 흐르게 하고, 민주의 당연함이 깊게 서린 광장에서, 나의 신심으로 이뤄온 심지로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나를 성찰하여 얻은 청명함으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을 환하게 밝혀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점등식 참가자들은 점등 이후 각자 연등을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했다. 점등된 미륵사지석탑 봉축 장엄등은 부처님오신날까지 광화문 일대를 환히 밝힐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가 석 · 박사 인력DB 첫 집계 · 공개

박사 188명 · 석사 224명… 조계종 홈페이지 고지

조계종 소속 스님들 중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공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가전문 교학자 및 특수분야 인물정보'를 공개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조계종 스님 중 석사 학위자는 224명, 박사 수료자는 193명, 박사 학위자는 188명, 특수분야 70명 등 674명의 △법명 △수계연도 △전공 및 학위논문 △학위 수여 대학 등의 정보가 수록됐다.

이를 통해 분야별 분류도 가능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수료를 포함한 석 · 박사 학위자는 비구 357명, 비구니 317명으로 비구 스님이 조금 더 많았다.

또한 대승불교 전공자가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교(116명), 인문 · 사회

대승불교 전공자가 가장 많아
교육 · 포교 · 연구 등 인력 활용
총 674명 학위 · 논문정보 수록

(71명), 사회복지 · 심리학(70명), 불교사 · 사상(51명), 문화 · 예술(46명), 초기불교(33명), 불전언어(27명), 포교전법(15명)의 순으로 전공자가 분포됐다.

조계종 교육원이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가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으로, 사찰과 불교 단체에 진행하는 교육 · 연구 · 포교 등의 활동에 전문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해당 정보는 전문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라면서 "향후 전문승가인력에 대한 기초정보는 매년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를 하여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가전문 교학자 및 특수분야 인물정보'는 조계종 홈페이지의 승가교육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8권째 서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1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 정법의 원류 책 내용 일부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

정법의 원류

〈정법의 원류〉는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이다. 정맥선원은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가 주재하는 도량이다. 〈정법의 원류〉를 통해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정맥을 이은 법과 지도방편을 만날 수 있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질문·토론’ 있는 승가교육 어떻게?

조계종 교육아사리 포럼 4월 21일 개최

신규 교육아사리 위촉도

승가교육 내 질문과 토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질문과 토론이 활성화되는 교육방법 도입에 대해’를 주제로 교수아사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왜 질문과 토론식 교육인가’를 주제로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수료)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무애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해인사승가대학장)·자현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중앙승가대 교수)·현견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강사)·원영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의 ‘질문과 토론’식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은 “부처님의 대기설법, 방편시설, 차제설법 등은 최근의 소통과 평등성, 양방향성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며 “승가교육에서 일방적인 지식전달이나 암기교육만이 아니라 소통과 양방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질문과 토론’이 활성화 되는 교육방법의 도입 방안을 각 교육기관별로 모색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교육원은 포럼에 앞서 포럼에 앞서 2017년도 신규 교육아사리 위촉식을 개최한다. 신규 교육아사리는 초기불교 분야에 송탁 스님이, 대승불교 분야에는 선응·현서·진욱 스님이, 한문불전 분야에는 신경·선암 스님, 응용불교 분야에는 혜장·재마 스님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올해 신규·재위촉되는 교육아사리는 총 44명으로 향후 승가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미수습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4월 7일,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목포 신항에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엔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 등이 함께했다. 스님들은 세월호 앞에서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 및 미수습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발원문을 낭독하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및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이 자리서 미수습자가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종단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가족 포교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할까

포교원, 제71차 포교종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4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내 가족 전법하기-가족포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71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포교 방안 중 하나로 가족포교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가족 프로그램으로 불자 가족을 만들기 위한 모범사례 분석 및 가족법회 대안 마련 모색이 이뤄진다.

먼저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 교수의 ‘현시대 가족포교 필요성과 대책’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의 ‘가족법회 모범사례를 통해 본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며 봉불사 주지 지오 스님, 최미선 동련 국장, 금륜사 주지 본각 스님, 이기재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장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분담금 부과체계 전면개편 ‘눈앞’

조계종 재무부, 분담금납부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996년 제정된 조계종 ‘분담금납부에 관한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와 함께 별도 규정으로 있던 사찰등급조정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계종 재무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4월 24일까지 15일간.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이메일(cosmos@buddhism.or.kr)로 가능하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분담금 책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등급을 대폭 축소했다. 본사는 기존 21개 등급을 7개로, 말사는 32개 등급을 12개로 줄였다. 사찰등급조정규정은 폐지하고 시행령에 별도의 장으로 반영했다. 또한 ‘기존종비’를 신설해 최하위 등급의 사찰에 적용했다. 말사 12등급(결산 50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종비가 부과된다.

예산기준으로 적용하던 분담금은 최근 3년간 결산평균으로 적용해 현실성을 높였다. 특히 사찰 모든회계에 대한 결산총액이 아닌 일반회계의 순결산(차입금·이월금 제외)과 문화재구역입장료 30% 예치금 중 당해연도 순세입분을 합산해 결산등급으로 반영했다. 중앙분담금 인상과 인하 방법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찰과 사설 분담금 배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본·말사 사찰등급 대폭 축소
교구분담금위원회 구성 외에
인센티브제 반영… 탄력 운영
4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받아

사설사암(포교소 포함)은 등록년도 3단계로 구분해 요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교구분담금위원회를 구성해 교구분담금 배정 및 사찰등급 조정업무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과다한 목적불사 부과를 제한하기 위해 종단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인센티브제를 반영해 복지시설, 계층포교, 교육기관 우수 운영 및 재임기간 중 사찰등급을 상승시키는 곳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눈길을 끈다. 사찰등급조정시기는 3년 단위로 시행된다.

개정안 입법 시 변화 내용

사찰등급	본사 21등급 → 7등급 말사 32등급 → 21등급
분담률	본사 2~4%→1~4% 말사 1~4%→기본종비~3.5%
분담금 기준	기존 예산액 → 최근 3년간 결산평균
사설사암	등록년도 3단계로 구분해 요율 적용

–사찰등급조정 3년 단위 시행

개정안 사찰등급과 분담률, 결산등급은 본사·말사기준 △1등급 4%(45억 이상)·3.5%(20억 이상) △2등급 3.5%(40~45억)·3.35%(15~20억) △3등급 3%(35~40억)·3.2%(12~15억) △4등급 2.5%(30~35억)·3.05%(9~12억) △5등급 2%(25~30억)·2.85%(7~9억) △6등급 1.5%(20~25억)·2.65%(5~7억) △7등급 1%(20억 미만)·2.45%(4~5억)다. 이하 말사등급은 △8등급 2.25%(3~4억) △9등급 2%(2~3억) △10등급 1.75%(1~2억) △11등급 1.5%(5천만~1억) △12등급 기본종비(5천만 미만)다.

재무부 관계자는 “법령이 1990년대 만들어지고 그동안 법대로 분담금을 배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동안 사찰등급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것을 재정현황에 맞게 현실화 한 것”이라며 “공청회서도 법령 개정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94종단개혁 23주년 “조계종단 쇄신하라”

실승회·신대승, 종단개혁 정신 되새길 것 촉구

1994년 조계종단 개혁 23주년을 맞아 현 종단의 쇄신을 촉구하는 집행부 밖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대승네트워크가 4월 10일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현 종단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실승회)는 “우리종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은 불교가 우리사회 최대 종교의 위치를 이웃종교에 내어준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며 “범계행위 및 금권선거 등 청정승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종단 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젠 변화해야할 때다. 민주적 종단운영과 청정수행종단이란 종풍수호를 위해 우리 종단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해소해야한다”며 “총무원은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조속하고 엄정하게 종헌 종법을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승회는 최근 종단 안팎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해 대다수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선거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승회는 “중앙종회는 선원수좌회 등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무원장 직선제 특위 활동을 강화하고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강조
불법행위 대한 종법 집행도
사부대중 의한 종단운영으로
“대안 숙의하는 열린 광장을”

종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또한 직선제 특위의 문호를 종도들에게 다양하게 개방해 공히 ‘사부대중에 의한 종단운영’이란 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실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대승네트워크도 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상기시켜 각자도생 문화를 척결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자고 천명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94년 종단개혁으로 성립된 새 종단체제는 전근대적 제도, 관행, 폐단, 폭력의 유산이 퇴출되고 종무행정 시스템이 구비됐으며, 형식적이고 절차적 수준에서나마 새 정치와 제도(법)가 구현됐다. 사찰을 비롯해 종단의 재정도 훨씬 규모 커졌다”며 “그러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종단 체제에 대해 실질적 민주주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범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회피하고, 비판세력을 종단 밖으로 몰아내는 등 종권을 종헌종법에 부합하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탄했다.

이와 관련 34대 집행부 뿐 아닌 불교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 말하며 진정성과 신뢰, 공유와 협동 체제로 나가기 위한 대안을 숙의하는 ‘열린 광장’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승려복지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상반기 5월 1일~31일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신규)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상반기 5월 1~31일, 하반기 10월 1~31일까지.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이다. 단 종단 미등록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 임직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그 도제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2017년 월 1만800원, 2018년 월 1만8000원, 2019년 월 3만6000원이다. 신청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승정상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팩스(02-733-3603)다.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02)2011-1726 **윤호섭 기자**

포교원 지정 ‘○○사 신행불교대학’ 설립 안내



포교원은 사찰의 현실적 조건 등으로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사찰에 대하여,
신행불교대학 지정을 통해 신도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 신행불교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사찰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신행불교대학은 신도전문교육기관령 제4조 5호에 의거하여 포교원 회의 의결로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신행혁신운동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임

∴ 명 칭 : ○○사 신행불교대학

∴ 운영주체 : 조계종 등록 사찰(포교소)

∴ 운영기한 : 2017년 6월 ~ 2018년 8월

∴ 지정대상 : 포교원은 사찰 시설이나 재정, 기타 조건이 어려우나 신도전문교육을 희망하는 사찰

∴ 지정요건
1) 교육과정 : 6개월 ~ 1년
2) 강사자격 : 조계종 승려 1인 이상(구족계 수지자)
3) 입학생 자격 : 당해 사찰의 재적 신도
4) 학생정원 : 제한 사항 없음
5) 시설기준 : 제한 사항 없음
6) 교과목 및 교육시간 :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육시간은 72시간 이상으로 함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비고
필수	불교개론	16시간	필수교과목 + 선택교과목 (72시간 이상 이수)
	부처님의 생애	16시간	
	신행혁신과 불자상	4시간	
선택	금강경의 이해	자율	
	불교문화·역사	자율	
	불교 신행(수행)	자율	
	봉사 활동	자율	

∴ 졸업특전 : 부동품계 품서, 포교사자격 고시 응시 자격 부여

∴ 신청서류 : 신행불교대학 신청서, 교과과정표, 강의계획서, 학생(입학예정자)명단 각 1부

∴ 서류 접수기간 : 2017년 **5**월 **31**일(수)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amita031@buddhism.or.kr)
우편(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포교원 교화팀)

∴ 문 의 : 포교원 교화팀 주임 장혜정 02-2011-1905

※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홈페이지 → 종무행정 → 포교〉 게시판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지 홍

"증도가자, '증도가 인쇄 활자' 아니다"

문화재위, 13일 '지정 부결' 결의… 7년 논란 종지부

2010년 9월 1일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세상이 놀랄만한 주장을 한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인 '증도가자'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튿날 서울 종로 다보성고미술은 증도가자 실물 12점을 곧바로 공개한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활자다. 보물 증도가(보물 758-1호)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인정되면, 기존에 알려진 최고(最古)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1377)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 문화재가 돼 학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후 여러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며 논란과 유명세를 탄 증도가자는 2011년 보물 지정 신청이 이뤄진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2013년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각 학술단체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나서 증도가자의 진위 여부를 위한 연구 조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모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했다.

세상에 공개된 뒤부터 7년, '증도가자'는 "보물 지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증도가자 7년 논란은 '지정 부결'로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서 간담회를 열고 "증도가자에 대한 안건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 동산분과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정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체 · 주조 · 조판 등 조사 통해
"보물로서 가치 없다" 결론내
출처 · 소장경위 불분명 이유도

'고려금속활자' 가능성 열어둬
다보성 측 "자료 보완, 재심의"

문화재청이 밝힌 부결 이유는 "증도가자로 지정 신청된 활자는 서체 비교, 주조, 조판 등 과학적 조사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한 점과 다보성고미술 측이 제기한 금속활자와 관련된 청동수반 · 초두와의 비교 조사가 불가능한 점도 '부결' 결정의 이유였다.



증도가자 논란 7년 일지

2010년
9/1 남권희 경북대 교수, 세계 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발견 주장
9/2 다보성고미술, 증도가자 공개

2011년
10/6 '증도가자' 101점 문화재청 보물 지정 신청(신청자: 이정애)

2012년
10/11 전문가 자문회의. 진위 결정 후 지정 절차 진행키로 결정

2013년
2/14 문화재위원회에 '증도가자' 안건 상정하나 지정 보류
10/10 문화재위원회, 종합학술조사 추진 결정

2014년
12/19 경북대 산학협력단,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 완료

2015년
2/12 문화재위, 지정 조사 실시키로 의결
6/4 증도가자 지정조사단 구성
10/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조 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7점 위조품" 발표

2016년
12/30 문화재청, 그동안의 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의견 수렴 진행

2017년
4/13 문화재위원회,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 결의

황권순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장은 "서체 분석 결과, 대조집단인 임진자 활자 복각본에 비해 평균 유사도는 낮고, 유사도 편차의 범위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일관된 경향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면서 "흠형 · 흠날개형 · 혼합형 조판 실험에서도 현 증도가자 활자로는 조판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 신청된 금속활자가 고려시기 제작된 유물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과장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비롯한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고려 시대에 제작된 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다"면서 "신청자와의 협의를 거쳐 청동초두, 수반을 분석하거나 고려금속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경우 지속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도가자'의 소유자인 다보성고미술 측은 고려금속활자로의 재심의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결과 발표 현장에 있던 다보성고미술 관계자는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를 하려 한다"면서 "우선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기부처 씻기듯, 마음도 깨끗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11일 서울 조계사에서 아기부처 관불의식이 봉행됐다. 관불의식은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속 탐욕과 번뇌를 씻는 의식이다. 의식에는 주지 지현 스님과 국 · 차장 스님, 신도회장단 등 2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관불의식을 집전한 지현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우리 마음 속의 갈등요소를 모두 씻어버리고 차별이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직선제' 일단 STOP

중앙종회서 2표 차로 부결

불교계 최초의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으로 관심을 모았던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이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는 4월 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8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개정을 위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종회에는 45명이 참여했으며 선거법 개정안에는 찬성 27표, 반대 18표가 나왔다. 종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6명 중 과반인 29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도산 스님은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종무방침연설에서 "종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차기 집행부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 퇴진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또 스님은 종정 스님의 재가와 함께 원로회의, 전국종무원장회의,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결의됐음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상정 후 종회의원 스님 중 일부는 종헌 개정 선결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의원들에 대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란 종회 내 비판이 나오자 종회의원 스님들 간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격론 끝에 비밀투표에 붙여져 결국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했다.

한편, 태고종 26대 총무원장 선거는 7월 경 치러질 예정으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임기 내 직선제의 지속 추진을 밝힌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노덕현 기자**

대학 MT를 템플스테이로!

문화사업단, 서울대 등과 'MT템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서울대, 동국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MT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대학 MT서 간혹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통해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선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해남 대흥사와 전남 백양사에서는 일찌감치 MT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흥사는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학생들과, 백양사는 호남대에 재학 중인 중국 · 일본 · 베트남 유학생들과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대는 종교학과 학생들이 5월 13~15일 봉선사로, 동국대는 환경동아리 '숲은' 학생들이 5월 6~7일 묘각사로, 한국외대는 사학과 학생들이 5월 11~12일 법주사로, 한국체대는 무용과 및 건강관리학과 학생들이 5월 27~28일 불국사로 MT템플스테이를 떠난다. **박아름 기자**

'화엄경변상도' 등 성보 한 데 모인다

송광사성보박물관, 4월 22일 확장 개관 특별전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는 4월 22일 성보박물관을 확장 개관하고, 특별전시 '새롭게 문을 열다!'를 개최한다.

송광사성보박물관은 200년 역사로 국보 4건, 보물 27건 등 2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2011년부터 문화재청, 전라남도청, 순천시청의 지원을 받아 약 8,000㎡에 이르는 신축박물관을 건립, 22일 오전 10시에 개관식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열리는 특별전시 '새롭게 문을 열다!'는 송광사가 보유한 국보 및 보물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시로 대중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성돼 국보 3건, 보물 16건, 등록문화재 2건 등 총 120여점 유물을 선보인다.



송광사성보박물관 전경

1전시실 '송광사의 역사'에선 보물 제572호 수선사형지기와 노비 문서를 비롯해 송광사의 창건과 중창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2전시실 '법, 불'에선 보물 제175호 경패, 보물 제204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 보물 제1467호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까지 송광사 소장 경전 관련 유물들이 대거 선보여질 예정이다.

3전시실 '불, 승'에선 국보 제314호 화엄경변상도와 보물 제1368호 영산전 팔상탱화 등 명품 불화들이 전시된다. 특히 송광사 근대 고승인 효봉 스님, 구산 스님 관련 유물과 송광사의 3대 명물 중 하나인 능견난사도 만나볼 수 있다.

4전시실 '16국사'에선 송광사의 정신인 16국사 행적과 관련 유물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 국보 제43호 혜심고신제서, 보물 제1376호 티베트문법지 등 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전시실에선 송광사성보박물관의 역사와 성보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스님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옛 성보박물관 성보각 등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화엄경변상도(국보 제314호)와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은 5월 3일까지만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11시, 오후 12~6시까지다. 종료 30분전까지 입장 가능.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봉은사대책위, 한전부지 공청회 21일 개최

서울시청서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과제' 주제

현대차 글로벌 신사옥(GBC) 건립과 관련해 조계종 측 주최 공청회가 열린다.

조계종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는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서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공청회는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 평에 대해 1970년 당시 정권의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부당하게 빼앗긴 역사의 진실 규명에 무게를 뒀다. 또한 해당 토지 일부인 한전부지에 계획 중인 현대차 신사옥 개발로 인한 봉은사 문화재 훼손 방지와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 대책 마련도 모색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대차 신사옥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당사자인 봉은사,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개발사업자인 현대자동차의 소통과 공의 수렴을 통해 조화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제정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장), 김봉석 변호사(금상), 이병인 교수(부산대), 홍석환 교수(부산대)가 발제를 통해 한전부지 역사적 의미와 역사문화환경 보존방안, GBC개발 전반에 대한 문제진단과 대안 등을 다룬다. 또 주경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박부영 기자(불교신문), 서울시 동남권개발사업단, 현대차 신사옥추진사업단 등이 참여해 토론한다. **윤호섭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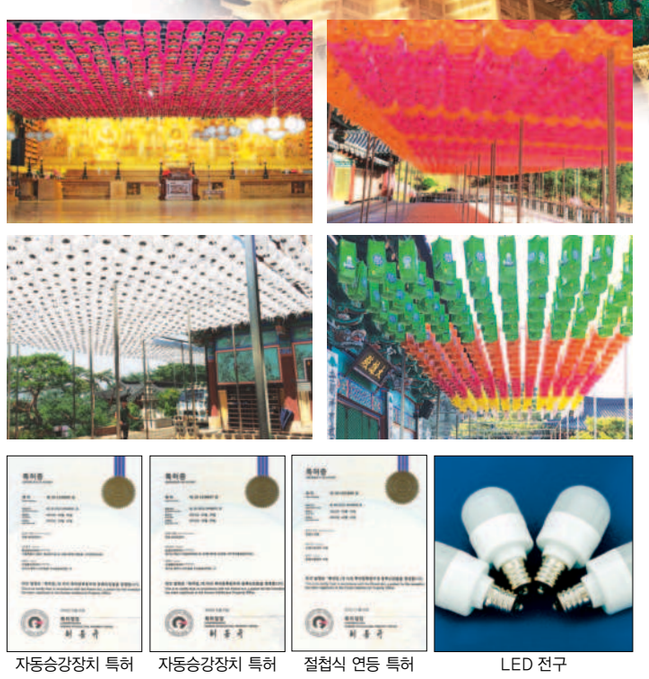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진흥원, 봉축위에 5000만원 지원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 사진)은 4월 10일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김규칠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서 볼 때 국가 위기 때마다 국민과 함께 짐과 아픔을 나눠온 불교정신을 오늘에 맞게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봉축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연등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코자 봉축위원회에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가섭 스님, (사)자비의전화 대표 선출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는 4월 7일 제20차 정기총회를 열고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사진〉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자비의전화는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부설 불교상담전문기관으로 가섭 스님은 이에 앞선 지난 3월 불교상담개발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가섭 스님은 총회에서 "불교와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심으로 임하겠다"며 "자비의전화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미술 권위자 정영호 前 관장 별세



한국 불교미술사학계의 원로이자 권위자인 호불(豪佛) 정영호 前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사진〉이 4월 7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발인은 10일, 장지는 경기도 양평 선영이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서울대 사범대 역사학과에 입학한 고인은 한국 미술사학계 대가였던 초우 황수영(1918~2011) 박사의 제자로 입문하면서 미술사 · 발굴 등에 인연을 맺었다.

1960년 황수영 박사 등이 중심이 돼 창립된 고고미술동인회 간사를 맡았던 그는 이후 굵직한 발굴성과를 낸다. 특히 1970년대 단양 신라 적성비(국보 제198호), 중원 고구려비(국보 205호)의 연이은 발굴은 고인을 최고의 고고학자 반열에 올려놓기에 충분했다.

또한 고인은 1977년부터 200여 차례 일본 대마도를 방문해 한국 문화 유적 발굴과 양국 교류사 연구에도 힘썼다.

서울대 사범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고인은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문화재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등을 역임했다. 1979년 대한민국문화상 대통령상, 2001년 만해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계 장애 편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설 것"

Interview

장애인식 개선 나선 성북장애인복지관장 선재 스님



"불자들 중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찰만 해도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드뭅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불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찰의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37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4월 21일 서울 성북천부터 청계천까지는 장애인들과 불자들의 걷기대회가 펼쳐진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번 걷기대회 '함께 걷는 성북, 하나되는 우리'를 개최하는 관장 선재 스님은 불교계 장애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자들이 몸에 장애가 있는 이들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걷기대회를 준비했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걷기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치어리딩 공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천연비누만들기, 장애바로알기 퀴즈, 장애인 봉사동아리의 지압서비스 등이 펼쳐진다.

4월 21일 '함께 걷는 성북' 걷기대회

장애 · 비장애 어울림에 힘써

"장애인, 명상 관심 활용 포교도"

스님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그리고 불교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며 "장애인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만 이용하는지 아는데, 많은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비장애인, 장애인들이 함께 희망을 가꿔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스포츠재활 프로그램과 장애인 배드민턴반, 발달장애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등 일반 시민과 장애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선재 스님은 "복지관 운영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데 의의 있다"며 "스포츠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부문이 많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불교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보다 많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스님은 "우리나라 사찰은 산중에 있어 휠체어를 끌고 사찰을 방문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며 "최근에는 대형사찰에서 경사로와 전동리프트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템플스테이 한번 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장애인들도 사찰에서 예불이나 참배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최근에는 장애인들 사이 명상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런 관심을 활용해 불교포교에도 새로운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강좌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 동참

이마트 · 천축사 등, 4월 11일 복지재단 후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범사회적 나눔행사 '더 나눔'을 위해 불교계 안팎에서 정성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마트 · 천축사 등은 4월 11일 '더 나눔' 후원기금 각 2,000만원,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했다. 아울러 이날 익명의 후원자는 아동 · 청소년 복지기금 2억 원을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익명의 후원자의 후원금 중 일부는 '더 나눔' 행사 취지의 일환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

한편 '더 나눔' 행사는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후원행사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7년간 진행한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의 확대 행사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가수 장윤정, 박완규 등이 참여하며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장충체육관서 열린다.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 말기 난소암 환자 등 지원

3월 치료비 지원 선정 피사누 · 노선재 환자에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3월 치료비 지원 피사누 · 노선재 환자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엔 생명나눔 이사 현조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과 두 환자의 보호자들이 참석했다.

피사누(14 · 남) 군은 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로, 2015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갑작스러운 전신통증과 피부발진, 양안출혈 증상이 나타났다. 이때 피사누 군은 희귀난치병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노선재(40 · 여) 씨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며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난소암 말기란 판정을 받았다. 미혼모로 13년간 홀로 육아를 책임져왔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와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가정이 모두 심리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아름 기자**

수산자비선원 불교인 단합대회



창원 수산자비선원(주지 법상)은 4월 10일 KBS창원홀에서 '5회 불교인 단합대회 및 14회 경로위안 잔치'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태종사 도성 스님, 석가사 가산 스님, 가산문도회 회장 운암 스님, 홍창호 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등 각 종단 불교지도자 100여명과 관내 어르신 등 1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상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을 염원하는 바램으로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석가사 조실 가산 스님의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80권 사경 원만회향을 축하하는 고불 축발의식을 열어 의미를 더했다. **노덕현 기자**

대구 무심사 수륙 방생 대법회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 무심사(주지 무심)는 제10회 수륙용왕대재 및 방생대법회를 4월 9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증명법사로 조계종 원로의원 묘허 스님과 주지 무심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묘허 스님은 "불자들은 나아가 생과 사가 따로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 우주 근본의 주인공 참 나를 발견하는데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로터스월드, 미얀마 정수시설 준공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미얀마 바고 지역 난우쉐 사원학교 정수시설 지원 · 설치 사업을 3월 말 완료했다.

미얀마 바고 난우쉐 학교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은 그간 오염된 우물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해 수인성 질병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정수시설을 지원, 상시적인 생활용수 부족 및 수질 문제를 겪고 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4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대한불교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조성한 미륵보전은 1층 면적이 661㎡(200평)이며, 외형은 3층이나 내부는 통층 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4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미륵보전 낙성식과 미륵존불 봉안 대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분당 대광사에 동양 최대 목조 건축물 '우뚝'

4월 10일 미륵보전 낙성 및 미륵불 봉안 대법회

17m 높이의 거대 미륵불 좌상도 위용 드러내

"국민 희망 주는 참배공간 조성", 1만여명 참석

경기도 분당 대광사에 17m 높이의 거대 미륵불상을 봉안한 동양 최대 단일 목조 건축물인 미륵보전이 위용을 드러냈다.

대한불교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조성한 미륵보전은 1층 면적이 661㎡(200평)이며, 외형은 3층이나 내부는 통층 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74호인 신응수 대목장이 도편수를 맡아 지은 이 성보 건축물은 외9포의 화려하고 웅장한 다포형 건물이며, 높이는 33m에 이른다. 또한 이 건물에 소요된 목재는 모두 2,200톤(11톤 트럭 220대 분량)에 이르며, 수령 400~900년 된 캐나다산 홍송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 1층에는 용화회상, 2층에는 미륵보전, 3층에는 도솔천궁이라는 현판이 각각 걸려 있다. 건물 외벽과 내벽은 미륵신앙을 담은 벽화와 단청으로 장엄했다. 신응수 대목장은 "국내의 금산사 미륵전과 경복궁 근정전 및 중국과 일본의 대형 목조건축물등 유수의 대형 건축물들을 참고해 이번 대작 불사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미륵보전 내부에는 미륵불 좌상을 모셨는데 좌대 높이가 2.7m이며, 좌불상 높이는 14.3m로 총 17m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김용섭 불모가 조성한 이 거대 좌불상에는 청동 88톤과 정사각형 11㎝ 금박이 15만장이나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기에 사용된 금가루만도 1.6kg에 달한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56억 7천만년 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고 알려진 '미래의 부처님' 즉 미래불이다. 또한 미륵신앙은 미륵불이 출현해 모든 고통번뇌를 소멸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발원을 담고 있다.

천태종이 대광사가 미륵보전 건립 불사를 시작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운덕 총무원장 스님이 6월 12일 기공식을 시작한 이래 14년만에 완성된 것이다.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당시 종단 어른 스님들께서 미륵불을 조성하기로 결정해 불사를 추진했는데 미래를 내다보신 혜안이 있으셨던 것 같다"며 "요즘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많아 미륵불이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을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조성불사의 큰 의의를 밝혔다.

4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미륵보전 낙성식과 미륵존불 봉안 대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해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춘광 총무원장 스님은 "오늘의 대광사 미륵보전 낙성대법회를 국운융창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봉행한다"며 "이 장엄한 미륵보전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귀의처가 되고, 세상의 희망과 평화가 자라나는 도솔정토가 되기를 발원한다"고 치사를 통해 당부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홍파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미륵부처님은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에게 새 희망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어서 미래의 부처님이기보다는 현재의 중생계를 보듬어 주시는 희망과 용기의 큰 스승"이라며 "대광사 미륵대불이 무명에 휩싸인 일체중생들에게 전미개오의 큰 빛이 되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법회 내빈으로는 대선후보 부인들을 비롯해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등 정관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조성한 미륵보전은 1층 면적이 661㎡(200평)이며, 외형은 3층이나 내부는 통층 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한편, 이날 법회의 주요 내빈으로는 김종인 前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김종규 천태종 총신도회장,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부인 이순삼 여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여사 등이 참석했다.

분당 대광사=김주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미륵보전 완공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내빈들.



김용섭 불모가 조성한 이 거대 좌불상에는 청동 88톤과 정사각형 11㎝ 금박이 15만장이나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기에 사용된 금가루만도 1.6kg에 달한다.



4월 10일 열린 '미륵보전 낙성식과 미륵불 봉안 법회'



14년간 이번 불사를 지휘한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



춘광 총무원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는 신응수 대목장.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법사

일우 스님이 들려주는 명쾌한 법화경 이야기!

행복한 삶,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법화행자의 길!

생활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 풀어내는 생생하고 감동적인 해설!



①『지금 나의 삶이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 336쪽/15,000원

②『법화신행 믿음』 342쪽/15,000원

③『영축산에 울린 사자후』 312쪽/15,000원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는

부처님 가르침!

법구비유경

법구경은 가장 사랑받는 경전이지만 게송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 있다. 법구비유경은 각 게송이 설해진 배경과 인연 이야기들을 통해 게송의 의미를 쉽고 명료하게 전해준다.



이동형 역/신국판/무선/400쪽/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계는 이미 봉축분위기 '후끈'

불교 각 단체, 자비의선물 전달, 점등식 등 개최



4월 10일 여의도 한복판에서 열린 언론사불자회의 점등식 모습.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두고 불교계는 이미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각 사찰을 비롯해 종립학교와 직장직능단체 등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봉축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선물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각급 부대 97개소에 전달될 자비의선물의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 전달되는 자비의선물은 과자류4종, 핸드크림, 합장주, 소책자 등 총 3만개로 현물가치로 1억 여원에 달한다.

조계종 경찰전법단도 4월 14일 조계사에서 중앙경찰학교, 경찰대, 경찰병원 등에 부처님오신날 맞이 자비의선물 3000개를 전달한데 이어 4월 23일 봉은사에서 서울청 기동단에 자비의선물 4500개를 전달한다.

자비의선물은 씨리얼과 비타민C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경찰전법단은 각 사찰에서 전 · 의경 후원을 위한 모금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불자들의 모임인 조계종 포교원 산하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정일태)**는 4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을 거행하고,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 불국토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언불련 지도법사 현진 스님 등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점등식은 헌다를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독경, 발원문 낭독, 축가 등 순으로 진행됐다.

종립대학인 **동국대(총장 보광)**도 4월 11일 서울캠퍼스 팔정도에서 '2017 연등점등식' 을 개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자광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교직원, 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학생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도 11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에서 500여 스님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점등식을 열었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도 4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분수대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한다.

이밖에 서울 대표사찰인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2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6회 유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봉은사는 매년 태아부터 10세 어린이까지를 대상으로 유아수계법회를 봉행해왔다. 이날 유아 수계법회는 법회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의식을 최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19일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 수계식을 개최한데 이어 27일 관내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한 자비나눔 행사도 개최한다.

조계사 측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다 보살피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음만 굴뚝같던 창업 서울형MC로 창업에 특허출현까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① 중구 '조명스타일' 유충열 대표



중구 을지로에서 '조명스타일' 을 운영 중인 유충열(38) 씨. 같은 업종의 직원으로 8년간 근무하던 그는 창업에 대한 의지는 있었지만, 창업자금은 넉넉지 않고 뚜렷한 담보도 없어 은행 대출이 힘들었다. 그러던 그는 현재 월평균 3,800만원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방법은 무엇일까?

유 씨가 현 사업장 '조명스타일' 을 2013년 4월 오픈할 수 있던 것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의 도움이 컸다.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던 중 조계종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출 지원 사업 마이크로크레딧(MC)을 알게 된 것. 유 씨는 이후 내방상담을 받고,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를 통해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유 씨는 "개인 신용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담보가 마땅치 않아 대출이 힘들었다. 그런데 조계종복지재단이 소정의 절차와 신고 과정을 거쳐 대출을 지원해줘 정말 좋았다"며 "창업 후 가계도 안정을 찾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매우 좋다"고 말했다.

현재 유 씨는 삼성SDS, 토니버거, BHC 등 다수 브랜드에 납품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총 대출금 중 60%를 상환한 상태다.

특히 유 씨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창업자금 대출 지원 후 전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특허까지 받을 수 있었다. 유 씨는 격월마다 방문하는 경영컨설팅 전문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현하고 싶다고 문의했고, 전문가는 특허 정보 제공 및 서류작성 등의 절차를 조언해 2016년 4월 조명과 관련한 실용신안 디자인특허를 취득했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특허 신청 방법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단에서 파견한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상표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며 "출현된 1개의 특허권 외에 나머지 2개 아이디어도 충분히 특허출현이 가능하단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올림픽 성공기원 잔치

4월 6일 평창 미탄면서 300여 어르신에 점심공양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불자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4월 6일 평창 미탄면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지역어르신 나눔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림동문회 회장 혜정 스님, 사무총장 지담 스님, 고문 학명 스님과 수석부회장인 도원 스님 등 총동림 동문회 스님들과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림동문회 회장 혜정 스님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앞서 평창지역에서 스님들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어르신들을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총동림동문회는 2016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첫 나눔잔치를 연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지역 나눔잔치다. 총동림동문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나눔 활동으로 부처님 자비 나눔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가르침 따라 지하철 통합, 화합으로 5월 8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통합을 앞두고 서울메트로법우회(회장 김영만)와 도시철도공사법우회(회장 임재화)가 4월 11일 메트로법우회 법당에서 개최한 법회는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앞서 이날 법우회 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양 회사 회원들이 화합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불자들 자비심, 행복바라미 기부로 전해요"

행복바라미, 4월 22일까지 300여 사찰 비롯해 500곳서 집중모금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이 진행하는 2017 나눔문화캠페인 '행복바라미' 집중모금이 4월 22일까지 펼쳐진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차 집중모금과 지역문화제, 행복바라미문화대축전이 진행되며, 백중까지 ARS와 CMS를 이용한 온라인 모금이 진행된다. 가을에는 산사축제를 기해 거리모금이, 겨울에는 동지를 전후로 동지나눔 행사와 전통문화 알리기 행사, 2차 집중모금이 실시된다.

이번 1차 집중모금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200개소와 300여 사찰 등 500개소에서 펼쳐진다. 모금은 현금모금함과 함께 기부용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나눔문화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심을 우리 사회에 전하는 이번 모금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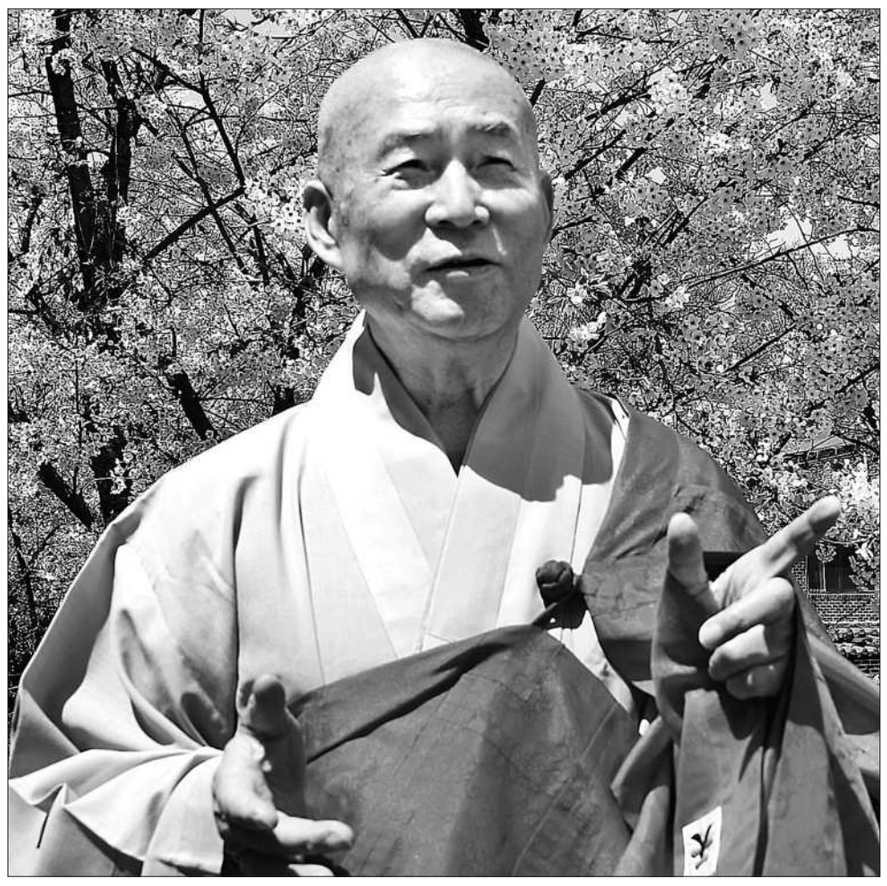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은 그분 처럼 살자 다짐하는 날”

보타락가사 초하루 법회… 주제 : 팔상성도란?

태안 보타락가사 관음굴 회주 법진 스님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은 4월 9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일요 초청 법회서 ‘팔상성도의 의미 조명’ 이란 주제로 법문 했다. 팔상성도(八相成道)는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를 여덟 기간으로 나눠 보는 전통적 방식을 말하는데, 팔상 시현(示現), 팔상작불(作佛), 석가팔상 등으로도 말한다. 이날 법진 스님은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며, 부처님오신날은 그 분이 사바세계에 오신 큰 뜻을 기리며 우리도 부처님 처럼 살자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법진 스님은… 1967년 해인사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1968년 조계종 해인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77년 보운사 회주, 1978년 한국불교태고종 남허 스님께 입실, 1996년 수다원 원장, 2004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2009년 태고종 서울남부종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2주 있으면 다가올 5월 3일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삼계의 대 도사이고 사생 자부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위해 사바세계에 오신 성스러운 날입니다.

우주법계는 어떤 전지전능한 신의 독선적 점유물이나 주종간의 관계인줄 알던 중생들에게 준동함영(蠢動含靈)이 개유불성(皆有佛性)이라, 즉 중생은 모두평등하다고 역설 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 깊은 부처님 탄신일을 맞아 우리가 매단 연등 하나 하나가 자아를 탈피해 육도사생칠취(칠취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도 천도 신선도)를 밝히길 염원해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그 분의 생애를 축소한 팔상성도를 다시 음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 계시면서 많은 하늘나라 사람들을 교화하고 계셨습니다. 도솔천은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 욕계육천중 제 사천으로 이곳은 어떠한 결함 없이 모든 것이 만족한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묘족(妙足)이라며, 이 하늘 내원궁에는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수연을 기다리는 불보살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미륵부처님께서도 이곳서 장차 중생제도의 실상을 닦으면서 계신다고 합니다.

도솔천의 사람은 수명이 사천세 인데 도솔천 하루는 우리 중생계의 사백년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수명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탄생하실 곳을 물색케 했는데 사천왕은 중인도 가비라국의 정반왕과 마하마야 왕비가 청렴하고, 오직 뒤를 이을 적자가 없는 것이 궁중과 백성들의 근심이니 그 곳이 마땅하다고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어느 날 마하마야 왕비는 크고 흰 코끼리가 도솔천으로부터 달려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 왔습니다. 그때에 대지가 진동하며 잡귀와 악마는 무서워서 모습을 감추고 하늘에는 대 광명이 비춰 일월도 빛을 잃으며 다섯 가지 상서로운 기운이 충만하고 향기가 온 우주에 가득한 태몽을 꾸었습니다.

두번째는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입니다. 잉태한지 만삭이 되어 천비성 공주인 마야부인께서는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룸비니공원서 잠시 쉬면서 천만가지 꽃들을 보시다가 산기가 느껴 와 시녀들이 곧 산실을 만들어 싯다르타 태자를 낳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목고사방(目顧四方)하고,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향하며(右手指天 左手指地) 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외치셨습니다. 즉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 신에게 존속된 유형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각자가 온 우주에 고귀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나 대자연의 결여된 정복자가 아니라 크나큰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부처님 탄생은 카빌라 국의 영광뿐 아니라 온 우주의 영광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모든 살생을 금하고 각 감옥에서는 극악무도한 죄수 빼고는 모두 석방 했으며, 사형수 에게는 참형을 면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한 그 시간부터 모든 중생들에게 은혜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정반왕은 곧 점성가인 아사타선이란 선인을 불러서 싯다르타 태자의 관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인은 관상을 보다말고 엉엉 울었습니다.

> **蠢動含靈이 皆有佛性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일체 차별없이 모두 평등하다**

깜짝 놀란 정반왕은 선인에게 그 이유를 물은즉 선인은 싯다르타 어린 아기 태자에게 오체투지를 하고 말하데, 삼십이상(서른두 가지 잘생긴 것)과 팔십종호(팔십 가지의 특징)를 갖춘 태자께서는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안되면 출가해 도를 닦아 법계중생을 제도할 선각자가 되실 것이 분명한데, 내 나이가 많아서 그 세월을 보지 못해 너무 슬퍼서 운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입니다. 그러나 정반왕과 문무 대신들은 기쁨 중에 항상 수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언가 선인의 말처럼 태자가 세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해 삼계 대 도사가 될 것이 걱정 되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없는 것 없이 치장하고 아름다운 무녀에게 춤과 노래를 주야로 연주하며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하지 않고 궁중생활에 애착을 갖게 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성숙하면서 남다르게 자비심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시종들과 우연히 동문을 지나다 허리가 굽고 남루한 행색의 노인을, 남문에서는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 서문서는 죽어서 송장을 실어 나르는 상여를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태자는 왜 낳고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가 의문을 품고 너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그 다음은 북문서는 승여(수행자)를 보았는데 모든 고뇌와 생사를 초탈하는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번뇌를 끊으려 한 것이 아니라 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번뇌에 속박되지만 수행해 거꾸로 번뇌를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입니다. “인간 세상은 괴롭고 허무 하구나 내가 부처가 되어 저 고통 받는 중생들을 다 제도해 해탈을 얻게 하리라.” 태자는 출가를 결심하고 차익이라는 마부를 길잡이로 성을 넘어 출가했습니다. 그때 태자는 아름다운 야수다라 공주와 결혼해 라훌라라는 아들 까지 얻었습니다. 다섯째는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입니다. 당시 인도서는 해박한 진리를 회통(會通)코자 수없는 철학자들이 수행했습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태양이 작열하고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고통을 이기며, 수행하는 바라문 수행 과정을 답습하면서 고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행이 참 진리를 터득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설산(히말라야) 보리수나무 아래서 일좌부지 경육년(一坐不知經六年)이라, 즉 육년을 하루같이 수행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 하신 후 중생을 위해 무변법계에 가득한 복과 지혜를 중생들에게 나눠 주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과 같이 열반적정(涅槃寂靜)에 들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요히 삼매에 들어 중생 근기를 사량(思量)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대왕 파순이 부처님께 와서 정성을 다해 예를 올리고 간청하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처님 법이 세상에 전도되면 모든 중생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악의 뿌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왕이 중생을 지배하면서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고집멸도 사성제를 깊이 이해하고 관찰하는 길**

“세존이시여! 이제 성불 하셨으니 이 오탁악세에 머물지 마시고 천상에 올라 천상사람에게 설법 하소서” 마왕 파순은 간절히 두 눈에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파순이여! 잘 들어라. 나는 이제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위해 위없는 감로법을 설 하리라. 마치 큰 거울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비추듯이 평등하게 모든 고통서 해탈해 영원불멸의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파순은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 대 광명의 법이 있는 한 마왕은 발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왕 파순의 딸이 셋 있는데 아버지의 근심을 알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소서 우리 세 자매가 힘을 합쳐 태자를 유혹해 마음을 혼돈 시키겠습니다” “내 귀여운 딸들아, 너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태자는 벌써 성불해 부처님이 되었느니라”

“아버님 우리는 천상천하서 가장 아름답기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요술을 부려서 더욱 아름답게 꾸민다면 제 아무리 부처라도 저희 자태에 안 넘어 가겠습니까?

셋 딸은 각자 아름다고 가녀린 처녀 등으로 갖가지 교태를 부리며 부처님이 삼매에 들고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를 벌써 아시고 세 여자를 백발 할머니로 변신케 신통을 놓으셨습니다. 파순의 세 딸들은 이런 자기들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파순을 따라 중생계를 다니며 보았지만 이런 추한 몰골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대로의 요술을 풀어 보려 했지만 신통으로 묶인 몸은 요술이 안통했습니다. 세 자매는 자신들도 모르게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합니다. 저희 자매를 어여삐 여겨 이 추한 몸을 신통으로부터 건져 주옵고, 다시는 악한 마음을 먹지 않고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항시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헌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세 자매의 모습을 돌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을 뿐이지만 그간 고통과 유혹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녹원전법상(鹿苑傳法相)〉입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6년간 수많은 고통과 난관을 극복하고 각자(覺者)가 되어 우주의 제일가는 성인 불타가 되었습니다. 불타께서는 맨 처음 싯다르타 태자를 호위하며 수행한 다섯 사람을 찾아가 〈고집멸도 사성제법〉을 설했습니다. 사성제법이란 고집멸도(苦集滅道)로 이상과 현실 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첫째, 고(苦)성제는 인간의 생노병사 희로애락 등은 결국 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집(集) 성제는 누구나 다변적 형상을 어리석게도 영원하리라는 생각으로 소유욕이 강해 나라는 편견된 존재의 왜곡된 아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쌓이는(集)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멸(滅)성제는 인과는 창조적 신의 장난이나, 운명의 소산이 아닙니다. 행도 불행도 내가 심고 내가 수확하는 것입니다. 멸은 최고 경지지만 멸이란 단어는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무여열반의 경지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뛰어 넘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道)성제는 위와 같은 적멸 열반에 이르려면 피나는 노력과 인내와 정진의 힘으로 도정(搗精)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덟째는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칠불 통계게(通戒偈)를 제자들에게 부촉했으니 제행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 했지요. 즉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짓은 하지 말며 청정한 마음이 곧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어리석은 미혹을 해탈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천당과 극락과 열반은 저승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불급중생 시삼 무차별(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이라 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일체의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 거룩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4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 (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인도 대표 석굴서 '불국토'를 만나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⑦ 아잔타 석굴



인도 석굴사원의 대표작인 아잔타 석굴의 전경.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조성된 아잔타 석굴은 굽타왕조 등을 거치면서 29개의 석굴이 만들어진다.

평원, 밀림으로 가득하다. 태초의 대지처럼 인적도 없다. 평지에서 푹 꺼진 땅, 거기 절벽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 강물이 흐르고 있다. 마치 말발굽 같은 U자형의 강은 바위 병풍으로 단애(斷崖)를 이루고 있다. 아, 거기에 석굴들이 오순도순 모여 있다. 1819년 4월 영국 존 스미스 군인은 사냥 나왔다가 진짜 엄청난 사냥을 했다. 아잔타(Ajanta) 석굴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호랑이 잡으려다 호랑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인도 문화의 금자탑 하나를 포획한 성과를 얻었다. '아잔타'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 그만큼 잃어버렸던 지역으로 남아 화려했던 역사 자체를 잊고 있었다.

와고라 강의 휘어진 깊숙한 곳 절벽을 파고 들어간 석굴사원. 오늘의 우리들은 석굴을 번호로 구별한다. 그러니까 초입부터 번호를 부여하여, 1번부터 28번까지 나란히 있고, 뒤쪽에 29번 석굴이 따로 있다.

아잔타 석굴이 있는 지역은 데칸고원 서쪽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 유명한 석굴사원이 있는 바, 7세기 오랑가바드, 8세기 엘로라 석굴 등이 있다. 그러고 보니 인도는 석굴사원의 나라 같다. 현재 남아 있는 석굴사원만 해도 약 1,300여 군데로 집계되고 있다.

인도 기후를 염두에 둘 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듯한 곳, 바로 석굴의 장점을 헤아리게 한다. 거기다 석굴사원이 많다는 점은 수행자들의 숫자도 많았고, 또 실용성과 더불어 상징성도 컸다는 뜻일 것이다. 더불어 강조할 것은 인도의 바위는 주로 현무암이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석굴 파기에 쉬웠다는 의미이다. 한반도의 화강암은 매우 단단해 석굴을 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했다. 우리의 화강암은 아잔타 석굴 같은 존재를 아예 열외 시켰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천연 석굴 대신 토함산 석굴암 같은 인공 석굴로 대신했던 것이다.

석굴사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차이티야와 비하라. 차이티야는 법당으로 번역할 수 있고, 수행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안에는 불탑이라든가 불상을 봉안한다. 반면 비하라는 수행자가 생활할 수 있는 일종의 승방 즉 요사채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예배와 수행 중심 석굴이라 한다면, 인도는 수행과 생활 두 가지 용도로 활용했음을 알게 한다. 물론 아잔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26굴처럼 대표적인 차이티야 석굴이 있고, 1굴, 2굴, 16굴, 17굴은 비하라의 경우로서 모두 같은 시기(5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니까 석굴은 불교사원이면서, 수행처이고 또 생활의 처소이기도 했다. 그만큼 인도에서의 석굴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잔타 석굴은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어 기원후 2세기 무렵까지 석굴사원은 초기의 전성시대를 누렸다. 그리고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굽타왕조의 460년경에 이르러 다시 아잔타의 영화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 때 20여 년 동안 20여 개의 석굴을 새로 만들었다. 당시 석굴로 차이티야의 제19굴과 26굴이 있다. 초기 석굴은 목조건축 그대로 흉내 낸 것처럼 일반 건축물을 보는 것 같다. 밖에서 보면 파사드는 정말 그렇다. 보통의 건축물 앞에서 서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갖가지의 입체적 조형물과 벽화로 치장해 놓았다. 마치 아름다움의 미술관처럼. 무불상시대를 경과했기 때문에 불상도 조성되어 있다. 어떤 석굴은 규모만 가지고도 감탄사를 연발하게 한다. 물론 그 기본은 아름다움으로 깔려 있어 순례자의 발걸음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제26굴은 차이티야 석굴로 내부에 6m규모의 불탑이 있다. 탑에는 사람 크기 정도의 불상이 새겨져 있다. 여기의 탑은 복발형태의 탑신 위에 상륜부를 두었다. 상륜부 꼭대기는 기다란 나무, 바로 우주의 축이자 세계의 중심 기둥을 세웠다. 중심의 기둥은 뒤에 탑의 찰주(刹柱)로 기능 변화를 가져왔다.

탑은 붓다의 무덤, 밥그릇 모양의 무덤 위에 기다란 막대기라, 이는 〈리그베다〉에 나오는 무덤 위의 기둥이 아닌가. 우리에게 불탑 위의 찰주로 이해하게 하지만. 그렇다면 석굴사원은 불탑을 실내 공간인 내부에 안치하고 있는 셈이다.

옥외 가람의 경우, 사원의 중심에 탑을 건립하는 것과 뉘앙스가 다르다. 26굴의 경우, 내부에 여러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기둥의 아래 부분은 각을 이루었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부드러운 원형 구조로 바뀌었다. 어쩌면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표현일까. 게다가 기둥 상부에 새긴 다양한 부조 작품들, 그 섬세한 디자인 감각에 놀라움을 이끌어낸다.

제26굴에서 감동을 자아내는 부분은 석굴 좌측의 열반상이다. 어쩌면 이렇듯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열반상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의 열반상은 아름다움과 깨달음을 동시에 선사해 주는 것 같다. 머리는 북쪽에 두고 오른쪽 팔로 얼굴을 괴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 고대 인도의 풍습에 의하면, 성인은 오른쪽으로 누워 이승을 떠난다 했다. 그래서 붓다는 오른쪽 팔을 괴고 비스듬히 누워 열반에 든 것이다. 어쩐 일인지 이런 자세는 고대 로마시대에서도 많이 보였다. 아무튼 나는 26굴의 열반상 앞에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표정과 자세. 과연 니르바나의 참뜻은 무엇일까. 열반상의 침상 아래에는 붓다의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가 슬픈 표정으로 있다. 120살이라는 노령의 나이로 붓다의 가르침에 동참한 늙은 제자의 자세. 거기에서 붓다의 열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한다.



아잔타 석굴의 백미는 벽화다. 사진은 가장 유명한 제1굴의 벽화.

B.C 1세기 무렵 제작 시작해
질곡 거치며 29개 석굴 조성
곳곳 산재한 벽화, 석굴 백미
석굴 양식, 한반도까지 전파돼
토함산 석굴암, 東轉의 결정체

아잔타 석굴의 백미는 벽화이다. 벽화의 아름다움, 마치 벽화미술관 안에 서 있는 느낌이다. 인물화 표현의 압권이다. 게다가 이렇듯 역사가 오랜 벽화를 간직하고 있다니, 물론 석굴이라는 건축적 특성에 따른 보존 효과도 있겠지만, 인도의 고대 벽화는 보배 중의 보배이다. 1천년 이상의 연륜, 이는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아잔타 벽화는 격조 높은 인물표현, 그것도 사실적 묘사와 박진감 넘치는 인체 표현, 일품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그림은 관능까지 느끼게 할 만큼 여체의 볼륨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 인도 회화의 절정과 같다. 색채 구사의 원숙함과 더불어 짜임새 있는 구성, 그리고 사실적 묘사력은 압권이라 할 수 있다. 6세기 건설의 제1석굴은 인도석굴의 대표성을 가질 만큼 우수하다. 벽화 속의 보살상은 약간 몸을 틀고 서 있으면서 화려한 장식품으로 치장하고 있다. 특히 머리에 쓴 보관은 세공기법을 동원한 화려함의 극치이다.

유명한 벽화, 제1굴의 안쪽 불당 입구의 왼쪽 보살은 오른 손에 하얀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연화수(蓮華手)보살(460~480년경 제작)이다. 삼각형 모양의 보관을 쓰고 있고 목걸이를 하고 있다. 원형 얼굴에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입체적 표현기법을 써, 눈썹은 S자 형태로 곡선을 이루며 양쪽으로 연결시켰다. 관음보살이겠지만 '미스 월드'의 그랑프리 같다. 불경스런 표현을 용서해 준다면 정말 미인상의 전형처럼 아름답다.

벽면마다 가득 그린 이야기들, 바로 다양한 자타카의 조형적 표현이다. 나의 눈길을 오래 끈 것은 자타카 등 스토리텔링의 현장이다. 제16굴 감상에 이어 제17굴 비하라의 자타카는 과일, 코끼리, 원숭이 이야기 등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17굴 벽화는 베산타라 본생, 우다인의 출가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바로 불전도와 전생담의 향연이다. 근래의 불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생담 이야기, 하지만 이들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넘치고 있다고 믿는다. 그야말로 스토리텔링 시대가 아닌가. 역사는 꾸준히 재해석되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역사는 죽은 사체라기보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 붓다의 일생이나 말씀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잔타의 벽화를 보면서 불교예술의 무궁무진함을 새삼 깨닫는다.

아잔타 석굴 참배를 위해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석굴과 같은 레벨로 진입하는 경우, 접근성은 좋지만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경이로움의 순간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감동을 선택했다. 석굴 반대편의 언덕 위에서 하차하는 방법이다. 처음 아잔타의 반대편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본 석굴의 전경. 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감동의 순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다. 이 감동을 안고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 아잔타 기행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인도의 석굴사원은 중국으로 들어가 화려한 역사를 맞는다. 키질석굴, 돈황 막고굴석굴, 병령사석굴, 맥적산석굴, 용문석굴, 운강석굴 등 한마디로 화려하다. 이들 중국 석굴의 바위는 역시 파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돈황처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할 수 있다. 석굴사원의 역사, 이는 불교 동전(東傳)의 역사와 호흡을 함께한다. 물론 인도나 중국의 석굴은 모두 천연 암벽을 파고 들어가 조성한 것이다.

이런 석굴사원의 문화가 한반도에 도달하여 토함산에서 결정판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토함산 석굴암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 그것도 치밀한 설계와 기획에 의한 인공 석굴이지 않은가. 아잔타에서 나는 토함산을 생각하면서 불교 동전의 참 의미를 그려보았다.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청운 감로 클로렐라 <음료식품>



클로렐라는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복합 당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소, 염록소, 핵산, 베타 카로테노이드, 플라보이드, 류틴 등의 항산화 재 식물성 영양 성분, 스테롤, 감마 리놀렌산 등 천연의 식물성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 및 음용방법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 밑에 가라앉은 입자는 몸에 좋은 영양소인 미생물 플랑크톤이므로 꼭 흔들어서 드십시오.

그라비올라로 가공하여 만든 이 클로렐라 음료는 스님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탄생한 음료입니다.
그라비올라는 1976년 미국 국립 암센터에서 잎과 줄기의 추출물은 악성세포를 파괴하여 거의 대부분의 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아마존의 그라비올라는 항암효과 및 면역체계보호, 경련감소, 박테이아궤멸,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 기침, 독감, 설사, 소화촉진 등에 좋습니다.

■ 제품가격 : 1병 1만원 (최소 주문수량은 10병입니다.)

제품문의 : 백련사 031)673-1087

석가세존 제삼심삼 존자 조사
- 12지신 전생의 인연법 -



석가세존 인연법에 따라 자기띠 월에 맞는 존자님께 기도하면 소원성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행운달마사에서는 제 33조사 존영과 제칠불보살님을 함께 모시어 기도 발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성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일 마하가섭존자부터 제33대감혜능(육조혜능)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알려지지 않은 서른세분의 존상들은 참으로 상상키 어려운 지혜로움과 신통자재하고 무한 자비로운 상호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에 33존자님들을 황토액자 위에 표현하여 직접뵙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행운달마사 주지 혜용 합장

존자 액자 특징
• 액자는 각 존자님들의 존영을 황토 바탕에 그린것입니다.
• 황토 액자속의 열선이 있어 120℃까지 온도가 올라가 복사열이 발생됩니다.
• 인연법에 따른 자기띠에 맞는 존자님을 알려드립니다.

울산 행운달마사 052)242-0108, 010-2003-0658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 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돈점 논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박태원 교수, 연구서 〈돈점 진리담론〉 발간

1981년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를 통해 보조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頓悟漸修)'는 '지해(知解)'이며, 정법의 장애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로써 현대 한국불교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인 '돈점 논쟁'이 시작됐다.

대부분 돈점 논쟁의 핵심은 '단박에(頓) 깨달음'과 '순차적으로(漸) 깨달음'으로 귀결된다. 또한 깨달은 뒤에는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들도 있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간적인 분별은 돈점의 수행론적 초점이 아니며, 시간보다는 '범주/지평/계열의 통째적 전의'로 읽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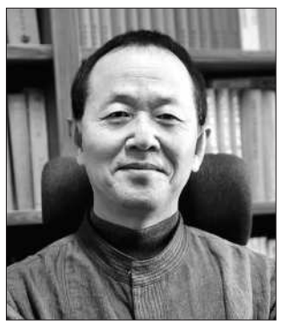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발간한 연구서 〈돈점 진리담론〉를 통해 돈오 사상의 시작부터 돈점 논쟁의 핵심 등을 지눌-성철을 중심으로 살피고, 돈점 논쟁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해낸다.

우선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를 통해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의 중심에 '해오(解悟)'가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돈점 논쟁 연구들이 '지눌의 돈오는 화엄적 해오'라는 명제에 국한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 명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와 화엄 교학의 대비 및 융합은 선교일치 사상의 이론적 토대와 체계 마련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화엄 교학에 의거해 돈오점수의 내용을 구성하고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처럼 돈오점수에 대한 성철 스님의 비판으로 전개된 돈점 논쟁은 핵심 논점을 놓고 혼란이 존재한다. 핵심 논점을 둘러싼 모호함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눌의 돈오를 화엄적 돈오와 선문 · 정학적 돈오,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눌의 언어 속에는 두 유형이 혼재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지눌 스님의 돈오가 두 지평으로 구별해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인정하면 돈점 논쟁을 다루는 틀과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눌 · 성철 돈점론 비판적 고찰
'혜학 · 정학적' 돈오, 新독법 제시
"이해 · 마음행법 차이담론 식별
그간의 불화 · 오해 해소 가능해"
현재 수행 풍토에 대한 비판도

또한 마지막 장에서 소개된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 · 선 수행 담론'에서는 일체의 분증(分證)을 돈오에서 배제하려는 성철 스님의 태도가 '돈오 범주에 관한 담론'임을 추론하고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은 선종 구성원들이 보이는 병리현상에 대한 치유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혜학 · 정학적 돈오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유형 구분론과 돈오 범주 담론은 돈점 논쟁의 새로운 독법을 구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면서 "돈점론을 둘러싼 불필요한 불화와 오해들은 이 두 담론유형의 식별적 이해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현재 선문(禪門)에 대해서 '언어적 능력'이 결핍돼 있음을 지적한다. 박 교수는 "간화문의 언어가 대변하게 된 선종의 수행론은, 마음방식 행법의 편향성에 노출돼 있다"면서 "선종의 언어 적대적 분위기는 장기간 누적됐으며, 현대 선종 구성원들에게까지 계승된 언어 부정적 태도는 아직도 충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종의 마음방식 행법 전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해방식 행법의 내용과 역할을 충분히 탐구해 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 탐구, 이해의 계발과 적용, 연기적 성찰과 사유능력의 계발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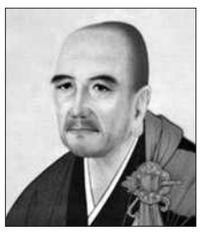
원효와 화성 당성 관계 조명 '주목'

불교문인協 · 화성문화원 4월 22일 학술 발표회

원효 스님과 화성 당성(당항성)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 발표회가 마련된다. 이날 학술 발표회에서는 원효 스님의 해골물을 마신 오도지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선진규)와 화성문화원(원장 고정석)은 4월 22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원효 사상과 화성 당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선진규 한국불교문인협회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원효 오도지 문제와 화성 당성(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원효의 화회(和會)사상과 평화교육(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 △원효 설화 그리고 문화콘텐츠화(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논평자로는 정희경(동국대 강사), 정성준(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교수), 정진원(동국대학교 강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불교문인협회와 화성문화원은 "화성 당성은 사적 제 217호로 지정된 곳으로 원효 스님이 중국 유학길에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깨달음을 얻은 불교사적으로 매우 의미 깊은 곳"이라며 "화성의 역사 인물과 향토유적, 향토사료 등을 조사 발굴하고, 대중화하기 위한 학술발표회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4차산업시대, 종교교육의 역할은?

한국종교교육학회, 4월 21일 춘계학술대회

눈 앞에 도래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종교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세곤)는 4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4차산업혁명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상봉 LG전자 사장이 '4차산업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이날 이 사장은 4차 사업의 특징과 그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로는 △VR 및 AR의 명상교육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강형철) △4차산업혁명과 불교윤리(장성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교육 방향과 필요성(김남희) △사물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종교적 지능(전철) △4차 산업혁명시대 사물인터넷의 관계 고찰(염승준)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이필원(동국대), 김동한(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김영철(동국대), 이원일(영남신학대), 장진영(원광대) 등이 참여한다.

김세곤 한국종교교육학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는 가성과 물리세계, 객체와 주체 등을 새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향후 종교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승보 · 조사신앙은 어떻게 형성됐나

중승대 · 정토학회, 25일 세미나

승보신앙과 조사신앙의 형성과 전개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앙승가대(총장 원행)와 한국정토학회(회장 정인)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5일 중앙승가대에서 '승보신앙의 재조명'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삼보와 승보신앙의 소고', 경성 스님(해인사 율주)의 '예경에 나타난 승보신앙', 황인규(동국대)의 '삼대화상(지공 · 나옹 · 무학) 신앙', 김호귀(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선종에서 조사신앙의 유형과 그 특징', 법상 스님(중앙승가대 외래교수)의 '정토의 조사신앙' 등이 주제 발표된다.

정토학회는 "이번 세미나는 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불 · 법 · 승 삼보 가운데 하나인 승보신앙에 대한 위치를 집중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조사신앙도 함께 고찰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찰 괘불탱 · 목판 모든 것 '한눈에'

불교문화재 조사 국책사업 관련 보고서 발간 잇달아
성보문화재硏 대형불화 조사
불교문화재硏 목판 일제조사

사찰에 소장된 괘불탱과 기록문화유산인 목판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잇달아 발간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지난해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시행한 경남 · 경북 사찰 목판 일제조사에 대한 보고서인 〈한국의 사찰문화재-2016년 전국 사찰 일제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 통영, 남해, 고성, 산청, 창녕, 하동), 경상북도(경산, 성주, 청도) 소재 18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 4,201점에 대한 조사내용과 강화 전등사, 안성 칠장사, 서산 개심사에 소장된 중요 목판 14종 425판(총 3,996장)에 대한 인출내용을 수록했다. 조사 결과 25점의 목판을 새롭게 조사했으며, 기존 조사 내용의 오류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15건 399점의 목판을 판종별 통합 및 재분류했다.



문화재청과의 공동 조사로 만들어진 불교문화재연구소의 '2016 전국사찰목판일제조사 보고서'〈사진 왼쪽〉와 성보문화재연구소의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사진 오른쪽〉

올해에는 경상북도(경주, 포항,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예천, 울진, 의성) 지역의 19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3,052점의 목판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완료한 목판 가운데 중요 목판을 선별하여 인출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찰 소장 목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은 사찰 괘불탱에 대한 2016 조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의 '대형불화 정밀조사'는 문화재청과 10년 동안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예신 수덕사 노사나불괘불탱(보물 제1263호) △부안 내소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8호) △부안 개암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9호) △영천 수도사 노사나불괘불탱(보물 제1271호) △곡성 도림사 괘불탱(보물 제1341호) △화순 만연사 괘불탱(보물 제1345호) △군위 법주사 괘불탱 △예산 대련사 괘불탱 등 보물 6건과 비지정 2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8곳의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대형불화 정밀조사'는 복원 · 보수에 필요한 분석정보, 예방적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적 자료 획득을 목표로 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괘불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관음신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불교문예硏, 4월 28일 학술대회

관음신앙의 다양성을 논의 · 이해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28일 오후 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호운각에서 '관음신앙의 다양성 이해'를 주제로 1학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관음보살의 천태선적 이해',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의 '관음보살의 상담심리학적 해석', 강은애 박사(선리연구원)의 '관음보살의 종교학적 이해', 박수호 박사(중앙승가대)의 '숭산 행원의 관음선종',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관음사상과 공유사회의 만남' 등이 주제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서광 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이병욱 고려대 교수, 원영상 원광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대출력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일개미 선지식

곤충의 세계에서 얻은 지식 하나 옮겨야겠다. 일개미의 수명은 대충 6개월인데 몹쓸 병을 앓는 개미의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이다.

병이 깊어 가면 앓는 개미는 고약한 냄새를 풍겨 다른 일개미들이 접근을 꺼리도록 경계한다는 것이다. 병의 전염을 염려한다는 뜻으로 고약한 냄새를 발산한다는 것, 병든 개미는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는 순간 온힘을 다해 개미굴을 빠져나와 개미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죽은 시체로 인해 병균의 오염과 전염을 막기 위해 사력(死力)을 다해 병든 몸을 끌고 집 밖으로 나와서 쓸쓸히 죽는다는 것. 텔레비전의 화면을 지켜보며 개미조사(祖師)의 죽음에 가슴이 먹먹하였다. 곤충의 세계에도 생명의 질서와 생활의 도(道)가 생생하게 교훈적으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몹쓸 병을 앓고 있는 일개미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 동료들이 가까이 오면 병이 옮길까봐 나쁜 냄새를 풍기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에는 얼마만큼의 독한 의지와 아픔이 있었겠는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동료들은 멀리 있고 따뜻하게 마주해 손잡아 줄 개미도 없이 처절하도록 외롭고 아픈 나날을 죽음의 두려움으로 절대 고독과 싸우는 일개미의 더딘 동작에서 왈칵 서러워지며 눈물이 났다. 가슴이 짜릿 짜릿 아파왔다.

지칠 대로 지친, 풀어질 대로 풀어진 병이 깊은 몸을 추슬러 한 걸음, 한 동작 매우 더디고 힘겹게 옮겨 개미집 밖으로 나와 생명의 마침표를 남기는 개미의 죽음에 누구라도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 터.

평소,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내 스스로 기본적인 행장을 챙겨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죽음을 앞당겨 마감하리라는 다짐을 굳혀 오던 터이다.

누구누구가 찾아와 죽음을 애도한들 부질없는 분주함만 더하는 일이요 꽃상여, 만장(輓章)이 행여 준비된다면 죽음을 더욱 욕되게 할 뿐이다.

화장(火葬)하면 나올 사리(舍利)도 없겠지만 뼈 조각을 추슬러 담아 추모한답시고 부도탑(浮屠塔)을 세우는 번거로움도 지극히 허무의 놀음일터. 왔다가 놀다가 가면 그 뿐, 흔적 찾아 흔적을 모아 흔적을 남기는 일은 부질없는 그림자놀이 일 뿐.

살아서도 시은(施恩)으로 살던 사람이 죽어서도 시은(施恩)으로 부도 따위의 기념비를 남긴다면 집착의 부끄러운 그림자를 길게 남기는 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개운하게 진솔하게 말끔하게 당당하게 살다 빈손으로 흔적없이 사라지면 그 뿐.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철저히 사무치게 철이 들어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되는 것이다.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 순수한 진실의 언어와 행동이 따르는 것이다.

모으고 챙기고 쌓아두려는 속물근성으로 명예와 명분을 앞세우며 이름 석자 알리는 일에 헐떡이고 흔들린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일리 만무하다. 어쩌다 보니 연륜이 쌓여 고승(高僧)대접 받고 선지식(善知識) 흉내내는 부끄러운 일이 늘고 있으나 자중자애 하여 회광반조(廻光返照)할 일.

고승되면 가사 색깔 달라져야 하는가
병든 일개미서 참된 선지식을 본다

고승(高僧)이 되면 몸에 걸치는 승복과 가사(袈裟)색깔이 달라져야 하는지 조심스레 되묻고 싶다. 고승과 선지식은 참사람을 의미한다. 참사람이란 사람다운 사람을 말함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되고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 되는 사람이다.

꾸미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머물지 않는다. 속이지 않고 속지 않으며 막힘과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다.

모으거나 챙겨 쌓아두지 않으며 나누는 기쁨으로 집착하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고마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해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부끄러움 남기지 않는 당당한, 평화로운 사람이다.

방편을 앞세워 세력을 모으거나 현실적 타협을 핑계로 평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지식은 사람다운 참사람의 선지식이다.

일개미의 병든 모습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또 하나의 선지식을 보는 것이다. 또 하나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유불선 삼교의 소통, 虎溪三笑
〈호계삼소〉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강서성(江西省) 구강현(九江縣) 남쪽에 있는 여산(廬山) 서북쪽 기슭에 동림사(東林寺)라는 절이 있었다. 동진(東晋) 때 혜원(慧遠:335~417) 선사의 도반이었던 혜영(慧永) 스님이 먼저 여산의 서림사(西林寺)에 머물다가 혜원 선사를 이곳으로 오게 한 후 당시의 자사 환이(桓伊)에게 부탁해 산의 동쪽에 혜원 선사를 위해 다시 지은 절이 동림사이다.

혜원 스님은 일찍이 육경(六經)을 배우고 노장학에 정통했던 대학자였다. 출가하여 도안(道安)을 찾아가 수행정진하기도 했고 여산으로 옮겨와 30여년을 지내면서 염불수행을 하면서도 교학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제자 법정(法淨)과 법령(法領)을 서역에 보내 범본을 구해와 계빈국 출신 승가바제에게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과 〈삼법도론(三法度論)〉을 번역하게 했으며, 또 담마류지에게 청하여 〈십송율(十誦律)〉을 번역하게 하였다.

특히 구마라습과 담론을 통해 문답을 나눈 것을 묶어 책으로 엮은 〈대승의장(大乘義章)〉은 그의 사상과 신념을 나타낸 최초의 저술로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 초기 중국의 불교의 이해 사정을 알아 볼 수 있다. 혜원 스님은 또 〈사문불배왕자론(沙門不拜王者論)〉을 지어 '사문은 세속을 떠났기 때문에 오로지 삼보(三寶)를 받들 뿐 왕이나 제후에게 예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혜원 스님이 살던 동림사는 여산 향로봉 아래에 위치해 경관이 수려했으며, 근처에 폭포가 있는 계곡이 있었다. 혜원은 이 절에 선림을 세우고 서역지방에 있는 불영굴(佛影窟)을 모방해 불영당(佛影堂)을 조성하였다. 그 뒤 이곳에서 염불삼매를 닦는 모임을 만들어 염불 수행에 힘썼다. 이를 후대에 와서 백련사(白蓮社) 혹은 백련결사(白蓮結社)라고 불렀다. 이는 사영운(謝靈運)이 이곳에 와 연못을 파고 흰 연꽃을 심었기 때문에 불러진 말이라고 한다. 이후부터 동림사는 정토종(淨土宗)의 발원지로 여겨져 왔다. 당나라 때 이 절은 매우 번창하다가 무종 때 회창법란(會昌法難)을 만난 뒤 황폐화 되었다가 선종(宣宗) 때 다시 복원 되었다.

송나라 신종 때는 이 절을 동림태평흥국선원(東林太平興國禪院)이라 불렀고 그 뒤 원나라 때 보도(普度)가 이곳에서 〈여산연종보감(廬山蓮宗寶鑑)〉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정토종의 교의를 전한 감진(鑑眞)이 일본에 건너가기 전 이 절에 머물면서 연종(蓮宗) 교의를 연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혜원 스님이 이 절에 있을 때 귀거래사의 시인 도연명(陶淵明)과 도사 육수정(陸修靜)이 스님을 찾아와 담론을 나누었는데 이때 혜원이 평소 절 앞의 호계(虎溪)라는 시내의 다리를 넘지 않기로 원칙을 정해 놓고도 배웅할 때 담소를 나누며 걷다 미쳐 다리를 건너는 줄도 모르고 이 다리를 건너다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다리를 건너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세 사람이 크게 웃었다는 고사가 있어 이를 두고 호계삼소(虎溪三笑)라는 말이 생겼다.

〈여산기(廬山記)〉에 "샘물이 절 아래를 돌다 호계로 흘러 들어간다. 옛날에 혜원 스님이 손님을 전송하면서 이곳을 지나는데 때마침 호랑이가 울었기 때문에 호계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뒤로 혜원 스님이 손님을 전송할 때 호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당시 도연명은 율리(栗里) 남쪽에 살았고 육수정 또한 도를 추구하는 도사였다. 혜원 스님이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전송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마음이 서로 맞아 지나는 줄도 모르고 호계를 지났는데, 이로 인하여 서로를 바라보고 크게 웃었다"고 전한다

이는 유불선 삼교의 대가가 함께 도담(道談)을 나누며 웃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나중에 격조 높은 선화로까지 승격되었다.

시선(詩仙) 이백(李白)은 '호계삼소'의 설화를 두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東林送客處
동림사 절 앞에서 손님 배웅하는데
月出白猿啼
달이 밝게 떠 있고 원숭이가 우는구나.
唉別廬山遠
웃으며 헤어지는 여산의 혜원 스님
何須過虎溪
아뿔싸, 그만 호계의 다리를 건너고 말았군.

분별망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⑯ 머무름이 없는 묘행

復次 須菩提 菩薩 於法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不住色布施 不主聲香味觸法布施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촉법보)
須菩提 菩薩 應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
(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
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南西北方 四
(가사량 수보리 어의운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
維 上下 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菩薩 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유 상하 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복덕 역부역시)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 但應如所敎住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여소교주)

"또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마땅히 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모든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相)에 머물지 말 것이니,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아래, 위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우리들의 보시는 남을 위해 도와주고 베푸는 보시에 머물러 한정되고 있으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시는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보시(布施)의 '보'는 보편하고 두루함으로 두 가지 상대법이 서로 융통하므로 분별에 머물지 않는 무주(無主)이며, '시'는 산(散)으로 흩어버리는 것으로 분별의 상대법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물지 말고 모두 보시하고 버려야합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대상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대상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며, 대상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산장사와 짚신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비가 올 때는 짚신장사를 하는 아들을 근심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산장사를 하는 아들을 걱정하는데, 어머니의 근심과 걱정은 어머니가 스스로 만든 것이지 대상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며,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눈이 대상을 볼 때 눈이 최초로 본 대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본 대상들을 처음 본 대상과 조합하여 뇌가 스스로 대상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뇌가 조합해 놓은 모습, 내가 보고 싶은 모습, 즉 나의 생각,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눈이 본 대상들을 기억하고 조합하는 습관적인 모든 행위가 업(業)으로서, 우리들의 앞에 나타난 일체의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은 우리들의 업장(業藏)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깔과 모양을 볼 때 크고 작고, 아름답고 추하다 등의 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 분별망념을 보시하여 버려야 하며, 소리를 들을 때에도 듣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망념을 보시하고 버려야 합니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 3,000일기도 입재를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요!

기도가 쉽고 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천도가 완벽하게 되며 천도기도 효과가 최상으로 일어나는 기도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3,000일 동안 본회 법당에서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신도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천도재는 그동안 많이 지내드렸는데, 아직도 조상영가님 들의 천도재는 계속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 원인을 밝혀서 간략하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연락주시는대로 불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영가들은 천도재를 완벽하게 해드렸다고 해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염원들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영가들이 원하는 일정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강한 파장을 보내고 있는데, 이 파장은 영가 장애 이상으로 사업이나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고 자손들이 잘 풀려 나가지 않는 여러가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① 1차로 1,000일 기도를 마치면 :
영가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수직 상승하여 우리 집안을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호법신장이 되는 초입단계까지 갑니다.

② 2차로 2,000일 기도가 끝나면 :
영가들이 모두 호법신장이 되어 우리 집안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③ 3차로 3,000일 기도가 끝나면 :
영가들이 모두 미륵보살의 정토인 도솔천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영가들의 바램을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법공양 영가특별천도재 3,000일 기도에 입재하는 것입니다.

■ 기도비
100일 기도비는 10만원이며, 100일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3,000일 기도하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총액이 모두 삼백만원이면 됩니다.
먼저, 100일 기도 신청비를 보내시면 보내시는 날짜가 신도님 각각의 3,000일 기도 입재일이 됩니다.

◇ 본회 방문 환영합니다 ◇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차내음 맡으니 火魔 현장 긴장감 '스르륵'

기장 소방서, 제1회 향기로운 예술 · 문화축제서 차 시연

4월 9일 향기로운문화동행 창립
예술 · 문화축제도 처음 개최해
소방대원들 향기입차다법 시연
지역 예술인 발전 지원금 전달도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4월 9일 개최한 '향기로운 예술 문화축제'에서 기장 소방서 김한효 서장 외 6명이 직접 '향기입차다법'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직 소방관들이 죽비 소리에 맞춰 차를 우린다. 그리고 부처님과 대중에게 차 공양을 올린다. 화마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구하는 소방관,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무게만큼 무거운 책임과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긴장의 연속으로 지친 소방관들에게 차와 명상으로 참된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기장차문화대학(학장 보혜)이다.

기장차문화대학장이자 기장불교연합회 문화국장인 보혜 스님이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하 문화동행)을 창립하고 4월 9일 기장 청량사 경내에서 '향기로운 예술 문화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주 전부터 차와 명상을 접하기 시작했다는 기장 소방서 김한효 서장 외 6명이 직접 '향기입차다법'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茶시연 뿐 아니라 동래학춤, 가수들의 무대 공연이 마련돼 풍요로움을 더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동행은 차를 비롯해 문학, 음악, 춤 등 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지역민과 소통해 힐링과 희망을 전하겠다는 의지다.

행사는 1부 식전행사 및 공연, 2부는 본행사로 대회사, 격려사, 내빈 축사 등이 진행됐다. 3부는 '향기로운 예술문화축제 시상식'을 열고 상패와 기금을 전달했다. 수상의 영예는 △초의차인상 김대철 한국여천문화원 원장 △세향복지상 왕선자 부산백목련회 회장 △원효문학상 허경무 사)한글서체연구회 이사장 △청량예술공로상 이순희 부산불교작곡가협회회장이 안았으며 부상으로 기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특히 창립을 기념하며 문화동행은 창작기금 1000만원을 정영자 한국문인협회고문에게 수여했다.

참가자들은 봄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산사에서 차향을 느끼고 아름다운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라고 즐거워했다.

양산에서 가족과 함께 왔다는 김춘희(44) 씨는 "오늘 따뜻한 봄날 흥겨운 무대와 함께 아름다운 전통 차 문화를 접하고 볼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미숙(53 · 기장소방서 민원담당) 계장은 "차를 통해 명상하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전태화(49 · 기장소방서 구조구급팀) 주임은 "20년 동안 현장에서 활동했다. 긴장의 연속인 업무 상황이지만 앞으로 문화동행에서 진행하는 차 수업을 통해 명상하고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사무실에 누군가가 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보혜 스님은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은 문화동행의 출범을 알리는 시간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발전을 지원하며 고유 지역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사)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기장불교연합회장)과 김한효 기장소방서장, 이경애 기장차문화대학부학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여성불자회, 인재불사 22년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 1억3000만원 전달



부산 어머니들의 모임 '부산여성불자회'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22년 동안 인재불사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어 화제다.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4월 12일 부산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 · 고등학교 학생 20명을 초대해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총 43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창립 후 부산여성불자회가 지급한 장학금 금액은 총 1억3천여만원으로 알려져 여성 불자들의 저력을 보여줬다. 아울러 이날 부산여성불자회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에 발전 기금 50만원을 전달해 불교 복지와 문서포교를 응원했다.

왕선자 회장은 "22년 동안 인재불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던 것은 회원들의 관심과 동참이 이 있어 가능했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더 많은 사회인들을 위해 베풀고 살아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파라미타, 신입생 환영 발대식

총재 경선 스님 "각자의 역할 충실한 사람 되길" 당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 이하 부산파라미타)는 4월 8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신입생 환영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2017년 부산파라미타 신입생은 중 · 고등학생 포함해 1116명이며 지도교사는 31명이 새롭게 등록했다. 현재 부산파라미타는 총 18분회로 봉사활동, 부산문예창작활동, 청소년해외문화탐방,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이어가며 불교문화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도록 돕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총재 경선 스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저마다 역할이 있듯이 여러분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중구불교연합 창립 '포교 진력' 다짐

회장에 미타선원 주지 종호 스님 선출



최대 상가 밀집 지역이자 번화가인 부산 중구 지역 사찰들이 불교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4월 7일 부산 미타선원에서는 '부산중구불교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사진〉이 자리에는 고심정사, 대각사, 미타선원, 수도암, 정수사 등 5개 사찰 주지 스님 및 신도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회장에는 미타선원 주지 종호 스님, 고문은 대각사 주지 경우 스님, 고심정사 회주 원택 스님, 수석부회장 고심정사 주지 일성 스님, 부회장 정수사 주지 일준 스님, 감사 수도암 주지 거산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앞으로 중구불교연합회는 다가오는 봉축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불교 홍포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 내 사찰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종호 스님은 "부산 지역구 총 16개 가운데 불교연합회가 없는 곳이 중구를 포함해 두 군데였다. 지금까지 중구청에서 봉축행사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고 사찰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결성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중구에 불교문화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활동을 이어 가고 연합회 활동에 더 많은 사찰이 동참하도록 이끌어 낼 것이다"고 말했다.

중구불교연합회는 봉축을 맞아 4월 22일 오후 7시 광복로 점등식을 진행하고 이어 연등행렬, 체험부스 등을 운영한다. 체험 부스는 4월 30일 오후 2시 광복로 일대에서 열리며 컵 등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사경 체험 등 다채로운 불교문화를 부산시민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선덕여왕 숭모 다례재, 시민축제 장으로

선덕여왕숭모회, 제31회 문화다례재 개최



선덕여왕숭모회(회장 이혜숙)는 신라 제21대 선덕여왕을 기리는 제31회 선덕여왕 숭모 문화다례재(대회장 김무)를 4월8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야외공연장 특별무대에서 시민과 함께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엔 류규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 류형우 (사)한국예총 대구광역시 연합회장, 김창환 대구광역시 장애인 연합회장등 1000여 대중시민들이 함께 했다.

이혜숙 회장은 "숭모 문화 다례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셨던 선덕여왕님의 높은 업적을 기리고, 올곧은 정신을 후손들과 함께 이어가기 위한 자리"라며 "그 깊은 뜻을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자 개최하게 되었다"고 인사했다.

김무 대회장은 "최초의 우리나라 여왕으로 등극하신 선덕여왕은 뛰어난 통찰력과 지도력으로 삼국통일의 기반을 구축했다. 또 국태민안과 호국정신을 기본으로 찬란한 신라의 문화를 창조하신 위대한 대왕"이라며 "다례재를 통해 선덕여왕의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지도력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유지, 계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행사는 선덕여왕 제관식 퍼레이드, 선덕여왕 헌다의식, 황룡사 호국의 9층 탑 쌓기 등 진행됐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일환으로 경북궁 타령, 창작뮤지컬, 가르뱅이농악 보존회, 달구벌 북춤, 만화 그리기, 한지공예, 색점토, 풍선아트, 천연염색, 가훈적어주기 등 각종 작품전시 및 체험학습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정권 교체, 전 국민 꽃길 걷게 될 것"

문재인 더민주당 대선후보 범어사 방문 '눈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금정총림 범어사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불교특별위원회(상임대표 정홍섭)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불교특별위원회 창립법회'를 4월11일 범어사 경내 설법전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과 화합과 상생으로 하나 되는 국민을 강조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민주화의 꽃이다. 이 모든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재량이 있는 분이 나라의 대표가 될 때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과 자비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게 새기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후보는 "모든 국민이 꽃길을 걷게 할 가장 중요한 첫 과제는 정권교체"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과 아울러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합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이 귀신사 비로자나 삼불좌상 점안법회서 대중에 법문을 하고 있다.

소조비로자나 삼불좌상 개금 점안

김제 귀신사,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초청해 법회

김제 귀신사(주지 무여)가 4월 8일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이건식 김제시장, 김종회 국회의원, 나병문 김제시의장, 김제 보리수합창단, 지역불자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보물 1516호 대적광전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 개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점안의식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월주 스님의 법어, 무여 스님 인사말, 감사패 수여 등 순으로 이어졌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귀신사는 신라시대는 화엄10찰에 해당될 정도로 거대한 사찰이었다"며 "쉼 없는 기도 정진으로 지역의 귀감이 되는 사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여 스님은 인사말서 "금산사 및 귀신사의 여러 스님들이 귀신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며 "보물 1516호인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의 개금사업과 지난달 말 귀신사의 명부전 불상 및 영산전 불상이 모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 또한 귀신사의 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재 귀신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등 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1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천년고찰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대부분의 전각과 문화재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국불교 선봉장, 큰 뜻 기리자"

해남 대흥사, 4월 7일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4월 7일 해남 대흥사서 거행된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법요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서산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호국명승장 서산대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탄신 497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가 열렸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4월 7일 경내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정관계인사, 불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지휘한 팔도선교도총섭 승군장 서산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제향행사를 열었다.

특히 서산대제는 예제관 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유교식 서산대사 국가제향과 법어, 헌다, 헌화 등 불교식 제향으로 진행하는 법요식이 함께 열리는 등 특색있는 의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보살계 수계 금강대법회와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화폭과 원고지에 담아내는 제23회 나라사랑 글쓰기대회 및 사생대회가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법문을 대신해 호국애민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로 서산대사의 오도송과 열반송을 봉독하며 선조의 숭고한 가르침을 추모했다.

법문에 앞서 주지 월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를 하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이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이 흥이 나도록 하는 것이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스님들께서 맨손으로 일어나서 이 국토를 지켜내셨다"며 "제행향사는 그 큰 뜻을 기리는 행사이기에 더욱 감사하다"고 의승군의 의미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법요식에 이어 서산대사를 모신 표충사를 참배했다.

한편 정조대왕 때부터 해남, 순천 등 전라도 5개 마을이 합동 주관해 매년 봄 · 가을 국가제향으로 봉행하던 서산대제는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됐다가 20여 년 전부터 불교식 제향을 실시해왔다. 이후 대흥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옛 문헌 '표충사 향례홀기'와 '진설도' 등의 기록을 근거로 2012년 유교식 국가제향을 복원해 매년 봄에 봉행하고 있다.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을 추진하는 조계종과 대흥사는 '호국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호국대전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대사 황금십자가 복원사업, 다큐멘터리 제작 등 관련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동백시문학 템플스테이 개최

미당 서정주, 최영미, 김용택 시인 등 당대 내로라하는 시인들이 노래한 고창 선운사 동백숲에서 시인과 함께 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8일과 9일 '화암사 내사랑' 등 아름다운 사찰 풍경을 노래한 안도현 시인을 초청해 동백시문학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선운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 낭송, 동백숲 명상,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겨우내 무거웠던 몸과 마음을 깨우고 봄의 향연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을 제공했다.

근대 한국 시문학과 판소리 등 문화예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서 깊은 선운사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서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동백숲 그늘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고, 안도현 시인과 평소 자신이 지은 시 또는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성호 템플스테이 팀장은 "도량을 수놓은 동백꽃을 비롯한 아름다운 봄꽃들과 안도현 시인의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봉사, 찾아가는 마을 밥상 운영

매월 경로당 · 마을회관 방문해 행사 예정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음식 많이 있으니까 급하게 드시면 체합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쌍봉사는 지난달부터 매월 진안군 내 11개 읍면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 갖가지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

4월 8일에는 진안군 성수면에서 어르신 섬김잔치를 열었다. 성수면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이날 어르신 섬김잔치는 보경 스님과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군자원봉사센터등과 연계해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쌍봉사는 이날 어르신들에게 점심공양과 음료 등 다과를 베풀었으며 경기도 한사람나눔봉사단, 진안자원봉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공연과 의료봉사, 미용봉사 등의 나눔행사를 펼쳤다. 또 미니 연잎밥 체험, 미니 방향제 화분만들기 체험, 전래놀이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보경 스님은 "당초 어르신들을 쌍봉사로 초청하는 잔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먼 길을 오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해 찾아가는 잔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쌍봉사의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마을단위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는 작은 규모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법과 봉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서도 봉축분위기 '물씬'

전주 · 정읍서 봉축기원등 불 밝혀 봉축행사 시동


전북봉축위는 4월 8일 전주 종합운동장 주차장서 봉축기원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등 규모를 축소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전주시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기원등 점등식이 열렸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4월 8일 전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봉축기원등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알리며 전북불교와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원등 점등법회에는 성우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조계종 17교구 본말사 스님,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직무대행, 정동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자비와 평화를 위해서다"며 "미움보다는 사랑,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 좌절보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히자"고 강조했다.

전주는 이날 봉축기원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큰잔치, 행복바라미 축제, 불교합창제 등 크고 작은 봉축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 봉축위는 기원탑 규모를 축소하고 불꽃놀이를 생략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전주시의 청년신용회복 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읍사암연합회(회장 도완, 내장사 주지)는 4월 6일 정읍 중앙로터리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도완 스님을 비롯해 정토사주지 원공 스님, 운주암 성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생기 정읍시장, 내장사 서래합창단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점등식에서 정읍사암연합회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곡성 태안사 효잔치 '공양미 300석' 주제

심청의 '효' 사랑을 주제로 잔치가 열렸다.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는 4월 8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2회 태안사공양미 300석 효 잔치'를 곡성군 11개 읍 · 면 65세 이상 노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효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문화를 펼칠 의미로 개최한 '공양미 300석 효 잔치'는 효심의 고장 곡성 심청의 효심과 공양미에 얽힌 사연이 주제다. 여기에 사찰에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의 효도미를 만들어 일일이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증정했다.

행사를 주관한 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은 "공양미 300석 효 잔치를 통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 심청이의 효심이 어렵고 각박한 세상에 모든 사람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류종표 곡성군 노인회장의 축문을 시작으로, 배우 전원주 · 선우용녀 씨의 토크와 노래를 비롯해 각종 문화공연, 사진전시회, 장수사진 촬영, 의료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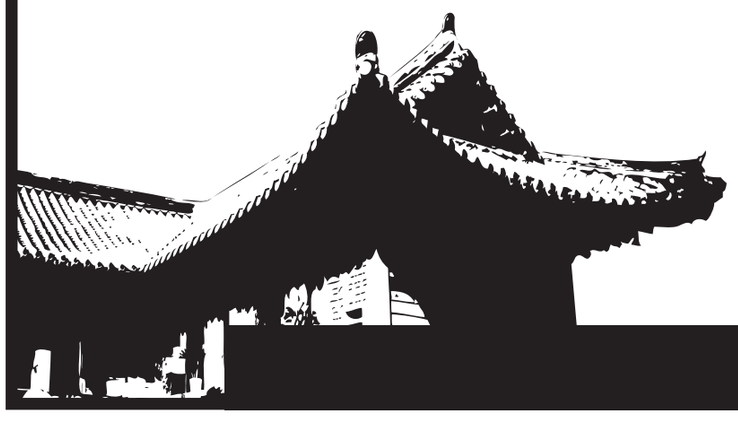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원한의 마음 잔뜩 품은 사람들 속에 자비심 깊게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는 살련다. 원망은 원망에 의해서 끝날 줄 모르니 참음(忍)을 실천해야만 능히 원망을 풀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곧 불변의 진리니라.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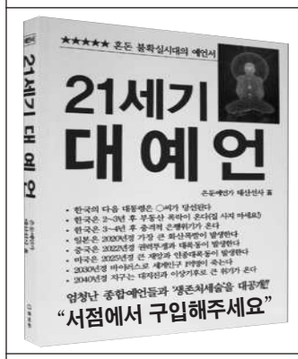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 추 교 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타로 & 백초귀장술
– 진로 적성 성격 질병 궁합
합격 승진 등
사주보다 정확한 심리상담가능
– 단기간 배워 상담가능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원
개원하실 분
010-8246-3253
책임 개인지도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010-5598-5078
무상 합장

불교범음범패학인모집
염불, 사물,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양고장 및
송주,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구, 용회사)
010-7579-8200
금륜사 주지 법현 도광

늦깍이로 스님 되실 분
경북 문경에 위치한 사찰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시봉하며 공부도 하고 스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010-8819-8988

法帥寺(법수사)
스님의 혜안으로 살피는 현재, 미래의 알고자 하는 일과 미래의 새로운 길, 시험, 진학, 합격운을 알고자 하시는 분, 원인 모를 병고, 귀신병, 빙의로 고생하시근 분 퇴마, 퇴치, 매매, 묘탈, 결혼, 이사, 하시는 사업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분, 현재 겪고 있는 불행한 일 사고, 재앙을 천도제로 막아 줍니다.
010-4640-4747. 055-382-2108
양산 통도사 부근

철학, 경전, 천도, 예수재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35-41세, 차후 사찰을 양도해 드립니다.
010-6536-0120
동해 스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시 복정동)
010-5382-82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파주)
010-5257-77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0-3639-8500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울산 백련암)
010-3034-2113

부전스님 모십니다
학인 또는 염불 못해도 상관 없음
(서울)
010-9087-6287

전통 구들 무료 교육
본 연구원에서는 각 종단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통 구들 교육을 무료로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도강사 : 구들 치수화를 발표한 구들장인 관요 **문재남** 원장
■ 참가대상 : 전통구들에 관심이 있는 스님
■ 참가인원 : 선착순 30분
■ 교육방법 : 이론 및 실기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3일까지
■ 일 시 : 2017년 5월 18~19일 (음력 4월 23~24일)
목, 금 – 1박 2일 10시 부터 ~ 17시 까지
■ 장 소 : 경남 양산시 명동 1003번지
(양산시 덕명로 319-15)
■ 주 관 : 나무와 흙 건축시공학원
■ 준 비 물 : 간편복, 필기도구. 세면도구
■ 주 최 : 나무와 흙 총동문회
■ 후 원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 숙 식 : 개별 부담
■ 연 락 처 : ☎ 055-366-2006
다음카페 cafe.daum.net/woodnsoil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이름으로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오늘운, 금년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울 분 모집 010-5792-0199
한국명품이름연구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 0068

스님이 안계신 어려운 절에서 무보시로 무료봉사 하기를 원합니다
(60대 비구승)
010-4882-383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신명 불로 탄생되어 온 사명제자 중생을 극락사에서 증명하여 신인류 천지인으로 탄생되면 천상극락(시리우스)에서 내려온 8만4천 신명, 불들과 통신하면서 지상천국 극락세계를 건설할 眞人(진인)을 모집합니다.
봉황산 063-352-2888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2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2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 녀 평생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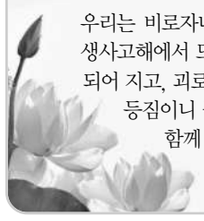
- **1인 1실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입주시 1천만원**
- **부부실 :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입주시 3천만원**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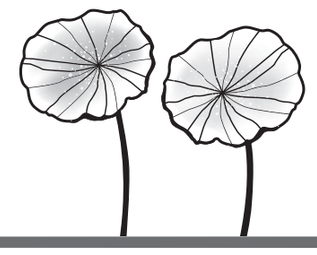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음욕(淫慾)은 불보다 뜨겁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이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그물이 없고, 애정의 흐름은 물보다 빠르다.

- 법구경 -



인천시 추천 사찰 안내

- 토지 182㎡(약 55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마당
- 지하철 인근 주차가능
- 양도가액 : 4억(조정불가)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논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공양간.산신각
- 토지 40㎡
- 마을에위치 교통편리. 남향이며아늑한 암자
- 양도가액 : 1억 3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 분석과 입지 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 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위치 : 서울
◎ 부지 : 1200평 ◎ 면적 : 2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80평 ◎ 요사 : 2동
◎ 양도가 : 9억 5천 ◎ 양도가 : 25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토지 : 270여평, 종각, 요사채 30평
- 법당 23평, 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 2,000세대 아파트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사찰(급)안내

- 인천시 사찰 양도
- 토지300㎡.3층법당.2층요사.1층공양간
- 시설좋은 법당. 안정된 포교 사찰
- 위치 좋음. 주차장 있음
- 가액 : 12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내용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
- 대지는 도지료 1년 35만원
-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 (2차선 상가지역)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세 놓습니다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가액 : 1억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인천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 3층 283㎡ (약 86평)
- 상담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삼사순례지 소원성취하는 절

- 이름 : 당산목 : 영신목(靈神木)
- 나이 : 일천삼백살(1,300세) • 무게 : 칠톤(7천 kg)
- 고향 : 전북남원 지리산

※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하고 영험한 영신목
"소원을 이루는 절" 용두산 위 불 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탑동길 92-45

종무소 : 055)224-0023
주지승 :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5평
  건평 : 92평
- 4층 건물
- 가액 : 5억 5천만원

010-5931-1071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 15분거리
- 대지 180평, 전 75평, 건평 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 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산동
- 대지 120평(종교부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스님친견실, 주지실, 주차장 상수도 및 약수(사시사철)
- 가액 : 4억 5천만원
- 완전 몸만 오시면 됨

010-7273-15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 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5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참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 하고자합니다. 대중스님네가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10개, 공양간, 창고, 외부 화장실 등등 대형 주차장 등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원

010-4628-5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
- 명리 상담 하던곳
- 평수 : 약 50평(화장실 포함)
- 깨끗한 건물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6829-4040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외 1동
- 산속, 차량진입, 경관 수려
- 양도가 : 6억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3길 42-9
- 대지 100평
- 대웅전 25평
- 요사채 48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10-5405-0752
043-733-2794

역세권 대형 포교원

- 위치 : 송파구 방이동 역세권 잠실역 몽촌토성역 3분거리
- 4층 35평 종무소, 요사채, 찜질방
  5층 35평 법당, 지대방
  6층 공양간 10평, 다용도실, 창고 및 옥상
- 전 층 황토세라믹 시공 및 세라믹 찜질방
- 각 종 제의식시 일체 민원 없음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9637-2355

촌 집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단지봉 해발 800m
- 특징 : 사시장철 청정수 흐르는 개울이 마당과 붙어 있고 특히 돌담이 아름다움
- 작은 집 3채(방 5개) 구들 난방, 태양광 전기 사용. 수행 공간으로도 최적
- 총 800여평. 가액 : 2억 2천

010-3805-2707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역전 앞 광장 3층 건물 중 3층. 역세권
- 실평수 28평, 방1개, 거실1개, 법당, 권리금 없음
- 포교원 철학관 하실분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조정할 수 있음

010-3840-5534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팔달역 5분
- 요사채 40평
- 몽땅 1억 7천 (조절가능)

010-8861-1785

단독주택 법당 안내

- 위치 : 세종시 행정타운 10분, 조치원 5분 딱중간지점 · 대로변 교통 편리, 차량유동인구 많고 근린,교육시설형성 좋음, 대로변, 포교원 운영 최적지임
- 1층 법당 요사채 산신 영가단 2층 옥탑방, 마당 ,주차장, 텃밭
- 가액 : 시보포함 2500 절충가능, 절살림 완비, 바로 법회가능
- 자세한사항 전화문의하세요

010-4598-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해수관음 도량 (7자)
- 대지 23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 몽땅 4억 3천(가격절충)
- 몸만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사절

010-7441-23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3000만원,월7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1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499-300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1분거리
-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지상 49.26㎡, 지하 24.03㎡ 마당 있습니다.
- 상계 제2구역 재개발구역
- 종교부지
- 가액 : 5억 5천만원

010-3763-28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지역
- 총평수 1,000평, 대지 500평, 농지 500평 요사채 30평, 완공 3년
- 사정상 법당은 미완공, 토목공사 완료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1급수 청정지역
- 가액 : 2억 4천, 절충가능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 평수 : 대지 125평 중 법당 30평, 삼성각
- 호신불 650불, 인등1008등
- 방5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 3개 주차 10대가능
- 신도시 형성 아파트 3만세대 고속도로 5분거리
- 가액 : 3억7천만원(대출가능)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 종교부지, 임야, 대지 약 5,700평 대웅전, 약사전, 삼성각, 노천불
- 요사채 및 황토 찜질방
- 가액 : 12억(아주 싼가격 급양도)

010-3470-97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송지면 소재
- 대지 110평(바닷가 접)
- 법당, 해수관음, 5층석탑, 용왕단
-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7,000만(답사후 절충)

061)337-33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공양간, 방1개
- 명리, 철학 호조건, 본절 소임 관계로 양도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2077-429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만덕
- 지상2층, 법당 100평, 방3, 공양실1, 주방1, 화장실1, 유료주차장, 건물주인직접 운영
- 법당내 수미단, 신중단, 산신단, 칠성단, 설법단 설법상 각단 조각으로 단을 짬, 총1억 소요
- 부득이 옮겨야 하는 입장 때문에 싸게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주인 불자임) 건물내 집기류 총 2천만원
- 급해서 싸게 드립니다. (절충은 안됩니다)

010-4466-3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
- 대지 : 510㎡
- 지리산 둘레길 펜션암자
- 등산로길가에 위치하며 맑은물이 양면으로 흐르는 합수머리이며 등산객이 많음
- 인연이 없으면 올수 없는 곳
- 가액: 2억 3천만원(대출가능)

010-3283-7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010-2498-7899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6667-4753
010-3852-2576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10㎜)
30,800원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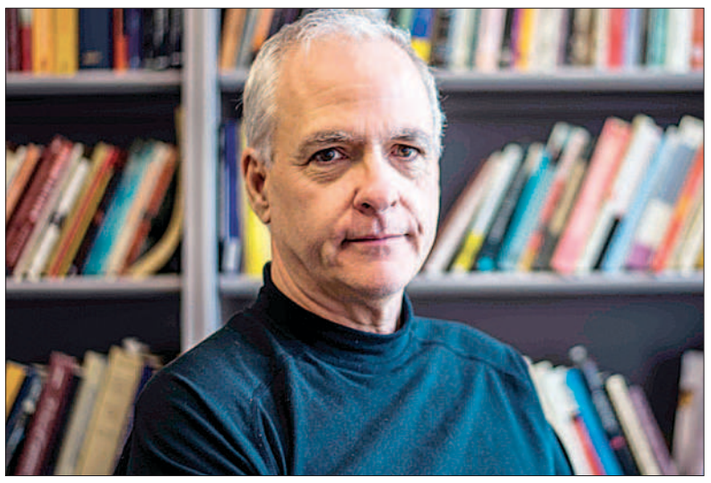
*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서양사회, 불교에 원하는 것 따로 있어"

29년 불교 교육자 뉴랜드 교수, 학내지 인터뷰

1988년부터 CMU서 불교 교육
제프리 홉킨스 아래서 수학해
"서양인들, 불교≠종교라 생각"
시대 따라 교육 내용 변화시켜



가이 뉴랜드 교수(사진)는 4월 11일 학내지 CM-Life와 인터뷰서 30여년 불교 교육의 경험과 철학을 밝혔다. 사진출처=CM-Life

불교를 가르치지만 또 여전히 불교를 공부한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낙이다. 미국 센트럴미시건대학교(CMU)에서 30여년 가까이 불교 학술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쳐 온 가이 뉴랜드 교수 이야기다. 불교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우린 사물을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다"는 추상적인 한 마디로 화두를 던지는 뉴랜드 교수. CMU 학내지 CM-life와 4월 11일 인터뷰서 자신의 불교 교육 철학을 밝혔다. 다음은 뉴랜드 교수와 일문일답.

종교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묘사하겠는가?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불교 전통은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것에 다가가는 방법이 더 가볍고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 즉 사물의 본질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방법은 불교의 관용과 연민이 관련 있다. 올바른 관점을 보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관용의 마음으로)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관점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전통을 가르치는 동안 무엇을 깨닫나?

불교는 종교이지만 몇몇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교의 일부를 좋아할 뿐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교가 종교란 생각을 거부하고, 단지 진정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종교가 바로 삶의 방식이다.(양분된 것이 아닌) 불교도 마찬가지다. 교도 다른 종교들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종교의 범주에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CMU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불자가 되길 원해서 강의하는 것은 아니다. 강의 자체가 그들의 흥미를 끌만한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다.

다만 많은 대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은 성장의 과정이며, 어른으로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주된 방법 중 하나는 불교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세계에 대해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불교를 배운다.

80년대 후반과 비교해 철학 및 종교학은 어떻게 달라졌나?

올해 우리 대학은 9.4%의 예산을 삭감 받았고, 명백히 학교 행정부로부터 소외됐다. CMU는 역사, 언어, 철학 및 종교 교육의 가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학문들은 더 이상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지 않는다.

하지만 난 CMU에서 일하는 게 좋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하고, 여기 오랫동안 머물 것 같다. 내가 쓴 〈공허에 대한 개론(Introduction of Emptiness)〉이란 책도 교육 경험이 없었다면 쓸 수 없었을 것이다.

30여년 교육하며 수업 커리큘럼도 시기마다 조정됐는가?

이제는 불자가 되는 게 중요치 않다. 서양인 중 불자의 비율이 늘고 있진 않지만, 불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단지 사람들은 불교로부터 (삶의 방식을)배우길 원하는 시대가 왔다. 나는 서양사회가 불교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주목해 수업내용을 바꾸고 있다. 현재는 관용과 사랑, 친절의 명상이 주목받고 있다.

뉴랜드 교수는 1988년 CMU 교수로 부임한 후 수 차례 철학 및 종교학과장을 역임했다. 2016년 강단으로 돌아오면서 '중국의 종교 전통', '불교전통' 등 강의하기 시작했다. 뉴랜드는 버지니아대학교에서 달라이 라마와 함께 일하는 최초 서양인 중 한 명인 제프리 홉킨스 교수 아래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태국사원, 美교회 인수해 태국불교 알려

태국불자센터, 증축 기념 태국 전통 축제 열어

미국 도시에 있는 태국 사찰이 낙후된 교회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태국불교와 태국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언론사인 스타트리뷴은 4월 11일(현지시간) "세인트 루이스 파크에 있는 태국 사찰이 불교 명상뿐 아니라 태국어 및 풍습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개된 사찰은 '태국 불자 센터(Thai Buddhist Center)'로 '미네소타 왓타이 사원'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미네소타 왓타이 사원'은 2003년에 설립돼 수백 명의 불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찰이 엘크리버에 있을 때는 스님들이 명상과 염불을 할 수 있는 공간정도만 있었고 미니애폴리스에서 차로 45분 거리라 교통이 불편해 불자들이 쉽게 찾을 만한 곳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미니애폴리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디 노리씨가 신도회장으로 선출되면서 2년 전부터 비워져있던 세인트루이스 파크 버치우드에 있는 루터교 교회 건물을 인수, 왓타이 사원 확장을 진행했다.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전기와 배관을 수리하고 부서진 창문을 교체하고 낙서된 벽도 새로 단장했다. 이후 이곳에다 불상들을 배치하고 명상공간으로 꾸몄다. 태국 불자 센터는 오는 7월 스님 두 분을 더 모시기 위해 그들을 위한 집도 마련한다.

건물이 완성되려면 아직 1년이 남았지만, 지난 일요일에는 증축을 기념한 태국 전통 축제를 개최했다.

태국계 미국인들은 야자수와 열대과일무늬의 옷을 입고 퍼레이드와 전통춤 행사를 벌였으며, 방문객들에게는 파파야 샐러드와 버블티, 치킨 꼬치 등 태국음식을 대접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태국 사찰 '태국 불자 센터'는 낙후된 교회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태국불교와 태국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사진출처=스타트리뷴

잉 스리추챗 태국 불자센터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 음식과 춤, 언어, 음악 등 태국문화를 배웠으면 한다. 이 장소만큼 태국을 알릴만한 적당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태국불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처에는 유대교 회당과 가톨릭 학교와 성당 등 이웃종교 시설들도 많다.

태국 불자 센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와 믿음이 공존하는 이 곳에서 서로 인정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지역민들에게 좋은 화합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치우드 거주민들도 태국 불자 센터의 입주를 환영했다.

마가렛 로그씨 버치우드주민연합회장은 "2년 동안 교회 건물이 비어 있어 내심 걱정했는데 새로 온 태국불자센터가 건물을 유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 제이크 스파노는 "한 믿음 공동체(루터교)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공동체가 와 싹을 틔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中불교협, 비구니 결혼식 동영상 유포 회사 고소

"불법피라미드 조직이 벌인 일 명예훼손 고소할 것"

중국불자협회가 비구니 결혼 파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미디어회사와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4월 10일(현지시간) "중국 산시성의 우타이산불자연합회(이하 WBA)는 비구니 스님들이 우타이산에서 진행된 비구니 결혼식에 참가한 동영상을 유포해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유포된 영상에는 호텔에서 기모노를 입은 삭발한 여성들이 스마트폰으로 셀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영상은 웨이보에서 백만 명 가까운 사람이 보는 조회수를 올렸다.

동영상을 본 중국 불자들은 격분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부주의한 사회를 방치하는 행위"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웨이보 회원들은 "어떻게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영상을 게재 할 수 있게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토요일 WBA는 영상과 관련 "영상은 WBA 회원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Wuxingbi'라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원들이며 단순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영상을 유포한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불교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변호사를 선임해 불교신자들과 스님들을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비구니 결혼 파티'라는 영상이 웨이보에서 백만 명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가운데, 이 영상은 'Wuxingbi'라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원들이 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얀마 정부 "인공청소 말도 안 돼"

타웅 툰 국가안보자문위 정부 두둔 '논란'

타웅 툰 국가안보자문역이 인공청소 논란에 반박하며 미얀마 정부는 갈등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4월 11일 보도했다.

타웅 툰 자문역은 "무슬림에 대한 인공청소를 실시한 바 없다"며 "그것은 갈등 당사자들의 문제이며, 정부는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고 타협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며, 잘못된 행동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웅 툰 국가안보자문역은 "우리는 무정부 상태를 해결하려 할 뿐"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차별이나 인공청소와는 무관하다"고 정부의 주장을 두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서부 라카인주(州)에 위치한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난민수용소 폐쇄작업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난민들의 거취와 수용소 폐쇄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아름 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11〉 나 자신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상 직후 각성, 일상으로 끌어오자



이번 장에서는 명상의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도로의 상태, 이정표, 표지물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 내면세계를 여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경험을 담은 도로지도를 부분적으로나마 그려보고자 한다. 명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험하는 기본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명상여행의 고급 단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명상은 수련이면서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와 상황들이 있다.

내면의 경험은 직선적이지 않고 입체적이기에 명상여행은 일직선으로 계단을 오르거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에 나오는 명상 지도는 외면세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유념하기 바란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영적 여행의 지도는 척추를 따라 존재하는 일곱 개의 차크라다. 인도에서 차크라는 기운 센터로 영적 진보를 가늠한다. 수행자들은 대부분 주요 차크라의 이름과 그 위치를 잘 알고 있다. 각 차크라가 특정한 감정적 ·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으며 신체기관과도 관련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또 카슈미르 시바파에서 나온 요가지도도 있다. 이 지도에서는 명상이 현현의 36단계(tattva)를 통해 진화한다고 한다. 이 패러다임에서 영적 여정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에고와 동일시하는 데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의식의 전체성과 하나 되는 경지로 나아간다고 한다. 낮은 차원에서 우리는 실재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로 경험하며, 전체와 분리되어 유한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한다. 우리가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면 실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각성 안에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각성 안에서 자신이 창조의 의식과 다르지 않음을 알고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 단계별로 진화해 나감에 따라 체험의 내용은 점차 정묘해지고 각 개인은 다른 존재와 통합되어 간다.

각각의 탓트바 그룹의 체험이 특정 차크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지도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서로 잘 들어맞는다. 두 지도는 내가 이번 장에서 안내할 지도와 관련이 있다. 이는 베단타학파의 위대한 스승인 샹카라(shankara)가 제시한 네 가지 상태와 네 가지 신체로 이루어진 패러다임이다.

네 가지 신체

베단타 경전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육체와 마음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의 중심핵인 참자아를 양파처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나 '신체'로 표현한다. 베단타 경전은 인간의 기본 경험을 깨어 있는 상태, 꿈꾸는 수면 상태, 숙면 상태, 각성 상태와 같이 네 가지 상태로 나눈다. 네 가지 상태는 위에서 말한 껍질과 관련이 있다. 보통 우리는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상태에서 산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상태에 해당하는 '신체'로 산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실제로 네 가지 신체, 즉 네 개의 층을 거쳐서 간다. 신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정묘해지며 안의 신체와 밖의 신체는 서로 연결돼 있다.

평상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육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각이나 공상 속에 빠지거나 명상의 특정 단계에 들어가면 육체의 감각이 없어지고 정묘체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숙면이나 깊은 명상 상태에서 원인체를 경험한다. 초원인체는 우리가 참자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머무는 자리로, 명상 속에서 혹은 완전히 각성했을 때 나타난다.

명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네 가지 신체 중 하나에서 일어난다. 물론 이는 명상을 안내하는 하나의 지도일 뿐이다. 우리의 체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편리한 렌즈일 뿐이다. 요가에서 모든 범주나 이론의 틀은 각각의 체험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각각의 체험은 대단히 정묘하고 개인적이어서 이름을 달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언어를 떠난 차원에 대한 체험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개념이란 덫에 걸리기 쉽다. 한계가 없는 명상의 세계를 우리의 언어로 한계 짓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명상 언어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마주하는 세계는 구석구석이 다르고, 각각의 영역이 다르고, 체험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내면세계 모두를 언어로 설명하거나 이론의 틀 속에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1신체 육체 - 시공을 초월해서 육체(physical body)에서 느끼는 명상 체험은 대개 고통이다. 맨 처음 요가 자세로 앉는 법을 배울 때면 여기저기가 떨리고 아프다. 무릎, 엉덩이, 등이 익숙하지 않은 자세에 저항한다. 이전보다 좀더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면 몸은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한계를 넘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육체적인 체험에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지닌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몸이 느껴지면 명상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거나 어딘가에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

내면 들어갈 때 4개 층 거쳐
들어갈수록 더욱 정묘해져
이론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궁극적인 내면 합일 나타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겪는 통증이나 불편함은, 믿건 말건 진실되고 중요한 명상체험이다. 그것은 신체가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신체는 명상수련의 바탕이다. 쿤달리니가 우리를 보다 정묘한 차원으로 이끌 때 쏟아지는 기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체는 안정적이고 맑고 강해야 한다. 그래서 명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깨어난 샥티는 근육과 관절에 원활하게 흘러서 내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제2신체 정묘체 - 한참 동안 앉아서 수련을 하다 보면 대개는 육체를 지각하는 일이 줄어든다. 몸을 지각하는 대신에 생각은 물론 존재의 표면에서 흐르는 기운을 지각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지각하기도 한다.

정묘체(subtle body)는 기운으로 되어 있다. 이 기운은 생명 에너지요, 생각과 감정과 지각의 에너지다. 〈브리하다라니아카 우파니샤드〉에는 죽음이 오면 정묘체는 육체를 벗고 다른 몸을 받아 살거나, 내세를 경험하거나, 윤회를 한다고 전한다.

정묘체의 기운을 가리켜 프라나마야 코샤(pranamaya kosha, 생명의 칼집)라고 한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순수한 기운의 칼집이다. 요가의 성자들은 나무 수액이나 태양의 빛줄기, 대기의 이온, 물의 영양분 등을 가리켜 '프라나'라고 했다. 이 프라나는 순수의식보다는 약간 거친 형태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물리적 우주와 그 우주의 정묘한 본질을 이어준다.

인체 안에서 프라나는 신체와 마음과 영혼 사이에서 기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신체의 모든 계통과 연락하며 신경계, 내장, 근육에 원기를 공급한다. 프라나는 뇌를 통해 신체의 각 기관과 근육에 신경전달물질을 내보내는 원동력이다. 프라나는 감각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인상을 만들고, 생각을 형성한다. 우리는 호흡할 때 산소와 함께 프라나를 흡수한다. 호흡이 느려지면, 그에 따라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래서 호흡을 따라가는 수련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제3신체 원인체 - 명상을 하다 보면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은 아무 기억도 없는데, 명상이 끝났다고 종이 울리더군요." "어디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의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하려고 하면 그저 휴식과 평화와 편안함 등의 느낌만 떠오른다. 몇 시간 동안 호흡이 고르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나 머리를 벽에 대고 있었을 수도 있다. 잠든 상태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잠든 상태도 아니다. 혹은 포근한 어둠을 보기도 한다.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낌만 좋을 때도 있다.

한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공 속에서 수많은 명상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 특히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이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명상을 원인체(casual body) 명상이라고 한다. 원인체는 완전히 어둠(깊고 충만한 상태의 어둠)으로 이뤄진 존재의 층이다. 보통 꿈도 꾸지 않고 숙면에 들 때 우리는 원인체에 의존한다. 원인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엄청난 지복의 자리라는 점이다. 하지만 원인체가 최후의 경지는 아니다. 원인체는 아직도 무의식이 남아 있는 경지이고, 참자아는 의식과 각성이 활짝 깨어난 경지다.

제4신체 초원인체 - 명상이 극적이거나 고요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수련의 목표인 보는 자, 순수한 참나로 돌아와야 한다. 어떤 명상을 하든 대체로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신체를 거친다.

어떤 상태, 어느 순간에든 순수각성과 참자아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체험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난다. 밝은 각성의 장으로 비상하거나, 평화롭고 드넓은 하늘에 앉아 저 밑에서 생각이 재잘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한다. 또 생각이 충만함의 호수 속으로 녹아들기도 하고, 작은 자아로서의 '나'는 사라지고 크고 넓은 존재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게 "이 와중에 참자아는 어디에 있는가?" "참나는 누구인가?"라고 자문하며 차츰 지켜보고 있는 존재를 자각하기도 한다. 그 존재는 '몸-인격-자아'를 둘러싸고 있거나, 머리 위에서 아무런 평가 없이 그냥 지켜보기도 한다. 순수한 나, 위대한 각성이 그 정묘한 얼굴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각성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냥 그 각성이 되기로 마음먹으면 된다.

명상을 하면 궁극적으로 내면의 사자하(궁극적인 합일)가 나타난다. 단 하나의 맛으로 빛나는 세상, 보통의 생각으로 구속받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세계를 경험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명상으로 평화나 기쁨을 체험하거나 순수각성을 맛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깨닫는다. 우리는 그런 경지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서, 오가는 생활 속에서도 깨어 있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상이 끝난 직후에 각성을 일상으로 끌어오는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대행 스님

이 세상에 난 게 없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느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면서도, 지수화풍을 가지고 살고 지수화풍을 먹고 살면서 지수화풍을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이 몸뚱이가 허망하다고 생각하고 이럽니다. 자기 몸뚱이를 이렇게 좀 곱게 생각해서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씨를 갖는 것도 부모한테 효도요, 자기 자성신한테 효도예요. 이것도 없어지고 망가지면 좋지 않아요. 이것도 효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지수화풍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어때요? 전기가 어디서 들어오고 광력이 어디서 들어오고 전력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그리고 통신은 어떻게 하고요. 그 원리가,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광력이라든가 모든 게 대두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뭐, 레이저 광선을 쬔다 뭐 어쩐다 이러죠?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속에 의사가 있어서 만약에 레이저 광선을 가지고 광력을 쐐 준다면 아프지도 않고 아주 슬기롭고 머리도 안 빠지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약을 먹고 그걸 쬐면 머리가 빠지고 온통 딴 데까지, 딴 부위까지 마비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100% 다 됩니까? 30%밖에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수화풍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있어서, 그래서 '자력' 이러죠. 자력이라 하지 '자석'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자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서 '불교라는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하고요. 불교라는 게 무언가. 내가 있는 게 불교요 내가 사는 게 불교고, 지금 내가 움죽거리는 게 불교야, 전부가. 그런데 그게 왜 무슨 상표 붙듯이 꼬리표가 붙어야 합니까? 꼬리표가 붙은 게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라는 상품도 아니요, 기독교라는 상품도 아니요, 가톨릭교라는 상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컵이라는 상표는 붙어 있지만 누구라도 이 컵으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죠.

참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 근본만 지금 얘기했는데요, 이 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잘못 말씀해 드렸다면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반문하실 때에 서슴없이, 함이 없이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 귀신 방귀씨가 "너 찾았느냐?" 하니까, 대나무 귀신 방귀씨를 모르거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깨쳤나 안 깨쳤나,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보느라고요, 박을 심어 놓고 바늘로 콕콕 찔러 보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귀를 뀌었다면 소리는 났는데 온데간데가 없죠. 그러니 그와 같이 질문을 해도 질문한 사이가 없고 질문을 받아도 받은 사이가 없다 이 소립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그 도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참, 저 우주의 모든 거와 더불어 우리도 나올 때 물주머니에서 나왔듯이, 고향이 물주머니듯이, 또 우리의 고향이 지수화풍이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해서 저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닙니다. 어느 부처님이 소 앞을 지나가는데 이랬더래요. 소가 한 열 마리쯤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그 의식을, 문 밖에 쩍 들어가는데 그냥 의식을 뺐더래요. 그러니 남의 손에 고삐가 쥐여서 그냥 끌려 들어가기만 했지 아픈 거를 느끼지 못했더랍니다. 그 소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사람한테 참 고마움을 느끼면서 죽어 갔죠.

그런데 죽기 전에 미리 그 의식을 빼서 자기한테다가 넣어도, 열 명뿐만 아니라 만 명을 집어넣는대도 두드러지지 않고 빼내도 줄지 않는다는 그런 엄청난 사실이 있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죽는대도 그 소 모습을 벗어나는 거, 그 소 모습으로다가 있다면 그게 물이 들어서, 소로 살던 그 습이 있어 가지고 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사람도 물질화돼 가지고 물질로서 살던 이 습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화돼 있는 거를 다 버리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되 함이 없고 돈을 가지되 가짐이 없고, 쓰되 씀이 없고 하되 함이 없어서 걸림이 없이 여여함이라. 이 도리를 알라.' 이 소립니다, 지금!

그래서 예전에도 큰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넷째 마누라로 비유해 놓고 "얘, 큰마누라야! 나 죽게 됐는데 너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못 가요. 난 안 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둘째 마누라더러 또 그러니까 "나도 못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큰마누라는 "추우면 당신이 추우니까 입었고, 더우면 당신이 시원하게 입었고 그랬지, 내가 입혀 달랬느냐?" 그거죠. 허허. 또 둘째 마누라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 같이 가자니까 "당신이 좋아서 나를 쫓아다녔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더랍니다. 셋째 마누라더러 물어보니까 "난 당신 죽어 가는 데 배웅은 갈 수 있지만 아주 같이 갈 수는 없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저기 저 태우는 데 뭐요? 화장터! 화장터까지만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자식들과 부인이 되든 남편이 되든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니 권속들이죠. 그게 셋째 마누라거든요. 그래 권속들은 다 거기밖에는 못 간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넷째 마누라더러 물어보니까, 그거는 주인공이거든요. 자기가 죽으나 사나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문제와 자기의 그 근본적인 문제, 이게 합류화돼서 항상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같이 가자고 해도 그렇고 가지 말자고 해도 그렇고 항상 그냥 같이 있노라고, 걱정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변소에 가도 자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가 있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먹는 거 대신 먹어 줄 수 있습디까, 사랑한다고? 예? 또 사랑한다고 대신 죽어 줄 수 있습디까? 대신 자 줄 수 있습디까? "아이고, 당신 피곤하니 내가 대신 자 줄게!" 하하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보, 당신 피곤하니 드러누워 있어. 내가 대신 똥 눠 줄게!" 이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도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혼자 왔다가 이 세상을 좀 더 알고 혼자 간다면 '우리가 가고 오는 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에 난 게 없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느니라.' 이런 도리가 나옵니다.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못 보지만 우리 인간은 보듯이, 깨달은 사람은 사람의 뿌리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든 걸. 즉 말하자면 컴퓨터에 입력해 놨으니까 한 번만 탁 누르면 거기서 다 나와요, 그 사람 살아온 게. 그렇듯이 그걸 숙명통이라고 한답니다. 천체통신기는 천이통, 또 타심통은 탐지기로 비유했고 신족통, 이건 팩스로 비유했습니다. 천안통, 이거는 천체망원경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체망원경이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망원경은 한계가 있지만 이 심안의 천체망원경은 한계가 없는데 모든 걸 탐험을 해도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두를 알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다면, 먹을 수가 없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들이고 내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또 안에서 나가는 거, 또는 거기서 통신을 하고, 거기에서 딱딱 정리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이더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좀 더 마음을 넓게 쓴다면,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뭐, 알라신교니 하고 야단법석 하는 거는 우리가

☞ A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살아 있는 깨달음, "아리랑"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깨침 아리랑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독특한 한(恨)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가 깃든 아리랑의 유래를 알아보는 일은, 한맺힌 아리랑 노래를 "깨침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 대현 스님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셨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신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중이시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 대현 지음 / 264쪽 / 값 15,000원

"나"를 떠나서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나리니
여보게들, 제발 제발
이 "나"를 속살 깊이 연구하여 보세나.
길은 안으로 안으로 놓여져 있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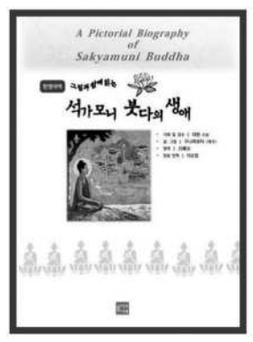
위빠간화선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위빠간화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하여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



그림과 함께 읽는 한영대역판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석탄일 법보시용
산청 정각사에서 정가의 50%를 지원합니다
문의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이 몸뚱이 가지고 한 철 날 동안에 이 도리를 꼭 알아야

☞ A17면에서 계속

어느 지역이라고 문패를 해서 붙여 놓은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 지역이라고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우리가 지역 싸움을 하지 말고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서로 지견을 써서 좀 더 한마음으로 조화를 누려야지, 우리가 공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다 저거다 싸울 필요가 뭐 있나 이겁니다. 좀 더 유순하고 좀 더 그렇게 합일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꽃다운 인생을 자유스럽게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요 몸뚱이 가져 나왔을 때 잠시 잠깐 한 철 사는 겁니다. 우리 중들이 한 철 나듯이, 요거 한 철입니다. 이 몸뚱이 가지고 한 철 날 동안에 그 도리를 좀 알아야죠.

그러니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요다음에 자세히 한번 또 들으시도록 하고, 또 들으실 때에 그때도 질문을 하시면요, 여기서 자세한 게 아주 꿰어져 나옵니다. 질문을 안 하면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이렇다더라 하는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질문하세요.

질문자2(여) 큰스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즉시 제도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짐승들이 사람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인연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부처가 왜 부처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사람을 보면 저항력을 느끼듯이, 짐승이 사람을 보면 달아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짐승 속에 들어가서 여러 짐승을 만날 때는 저항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건지려도 개구리가 내가 돼야 개구리를 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를 그대로 좀 연장을 하려면 내가 소 속에 들어가야 하고, 또 소로 연장할 게 없죠. 무명을 치고서 그대로 의식을 해서 내 컴퓨터에다 넣으면 그냥 전부 알아지는 거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그 도리가 알아져요, 그냥 의식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람으로 환생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생을 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죠. 그대로 그렇게 돌려서 내놓으면 눈도 떠지고 귀도 터졌으니까 사람한테로 다시 가서 환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뜨지 못하면 그냥 의식만 가지고 참, 소나 말이나, 즉 잠자리를 하는 데 그냥 들어가죠. 그렇게 그냥 들어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나오죠. 그러면 그 모습에서 천 년이 가나 이천 년이 가나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질문자2(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두 아들이 부모를 총으로 쏴서 죽인다든지 또 아버지가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인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되면 그런 인연으로 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죽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고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큰스님 예전에 이런 말을 묻더군요. 어느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첫째,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하나 묻고요, 그다음에 묻기를 또 "그럼 죄가 없는 어린애가 서로 놀다가 연탄집게로다가 이 정수리를 찍어서 죽였는데,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건 어디에 속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모르고 죄를 지은 거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다." 그런 말을 했죠.

질문자2(여)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물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총으로 쐈으면 그렇지마는 그 받는 부모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큰스님 그럼 그걸 비유해서 한마디 할까요. 옛날에 거미와 깻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집 가장자리에 거미줄을 치고 거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깻벌레라든가 무슨 벌레가 요만큼씩한 게 씩씩씩씩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건 다 갉아 먹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니까 그거를 안 죽이고는 안 되겠어서 두 영감 마나님이 그냥 깡통에다가 오줌을 담아 가지고는 뭐 그냥 반 깡통씩, 한 깡통씩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영감 마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집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시겠어요? 그 한번 이렇게 감춰지는 걸 못 보셔서 그러세요. 이 돌아가는 것만 보시지 50%로 돌아가는 건 못 보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나는 거미고 하나는 깻벌레인데 아주 뭐, 금이야 옥이야 하고 기르는데, 하루는 스님네가 탁발을 하러 오셔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아하! 이거 안됐구먼!" 하시더랍니다.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댁의 아들이 두 형제가 있죠?" "예." "내가 말을 할 테니 믿으시렵니까? 당신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꼭 3일만 있으면 당신 부부는 그냥 그 두 형제한테 뜯어 먹히고 맙니다." 하면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스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얼 했느냐 하면, 철망 있죠? 철망 요렇게 좁게 해 가지고 쪽 둘러놓고는, 예전에 왜 병아리 기르면 철망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듯 그렇게 해서 둘러놓고, 거적을 둘러놓고 그 가운데다가 겻불을 피워서 두 군데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놓고 아들 둘이서 글방에 갔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오기 직전에 딱 항아리 속으로 전부 들어가서 항아리 제 뚜껑을 자기가 덮고 그러곤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 배고파." 하고 아무리 울어도 그 착을 놓고서 한 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소리 없을 때 인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을 그렇게 막 그냥 부르짖고 그러다가 한 반시간은 또 욕으로 나올 테니까 그때 보면 알 거라고 하거든.



사랑을 하되 함이 없고 돈을 가지되 가짐이 없고
쓰되 씀이 없고 하되 함이 없어서 걸림이 없이 여여함이라.
이 도리를 알라.

그래서 그냥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해 봤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 어디 갔어?" 하곤 그냥 "배고파, 밥 줘!" 하곤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는데도 가만히 있었더니 나중에는요, "얘, 시간이 늦어 가는데 큰일 났구나." 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지금 이 고비가 넘겨지면 우리 원수를 갚지 못할 텐데 어떡하면 좋으냐?" "지금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고 막 울면서 그냥 이 연놈들 어디 갔느냐고, 응? 그 수많은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죽어 갈 때 어떻게 된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울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서 소름이 쭉쭉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숨도 못 쉬고 있는데, 한 시간 반쯤 아무 소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요, 그게 다 그 스님의 도력도 있겠죠. 그냥 한쪽은 깻벌레고 한쪽에는 거미인데요, 철망에 매달려서 겻불에 그냥 죽어 가는데, 그 많은 것을 다 그 스님이, 즉 말하자면 인과응보로서 그렇게 되는 거를 양쪽을 다 풀어 주고선 그냥 사람으로서 다시 인도환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의식을 빼느라고 전부 한군데서 죽게 했답니다.

질문자2(여) 그러면 만약에 스님이 오셔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셨으면 그 자식들한테 죽음을 당해 가지고요, 그러면….

큰스님 그렇죠.

질문자2(여) 이 자식들은 다시 깻벌레가 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서 그대로 생활이 되는 건가요, 그럼?

큰스님 깻벌레가 되지 않는 거보다도 그 부부에게 원수를 갚을 때에 깻벌레로나 거미나 그걸로 그냥 끌어당기겠죠.

질문자2(여) 그러면 큰스님,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 인연은 그러면 그, 전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인연에 같이 뭉쳐 가지고….

큰스님 그렇죠, 예. 어저께가 없으면 오늘이 없듯이. '어저께 댁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만나지 않았을 것을….' 하는 거와 똑같죠. 우리가 그렇게 연결돼 나가는 거죠. 우리는 연결이 없으면 화목도 없고, 연결이 없으면 싸움도 없고 그럴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한 대로 또 이렇게 받고 돌아가는 거죠.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오늘 당신 둘이 자는데 이 집에 전부 불이 일어나서 타게 되면, 그 두 형제가 그렇게 불을 놔서 타게 만들어 놓고 죽으면 그냥 거기에 달려들어서 전부 그냥 뜯어 먹어 가면서 같이 죽어 간다고요. 그래서 전부 깻벌레를 만들고 거미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원수를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 50%에 관한, 돌아가는 일들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삼가서 한 번 굴려서 생각해 보고, 욕을 하더라도 생각해 보고 거기다 맡겨 놓고 좋은 말로 부드럽게, 타이르더라도 부드럽게 타이르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질문자2(여) 큰스님,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그런 전생의 인연으로써 태어날 경우가 있다면, 그게 전생에서 그 원을 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는 그런 마음의 연속이 된다면, 만약에 그 부모들이 자기의 주인공한테 맡겨서 일을 했으면 그 깻벌레의 그 원수 되는 마음도 막을 수가 있는지요?

큰스님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면 깻벌레 의식을 그냥 자기한테로 넣어서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알게끔 해 주죠. 그럼으로써 그 불바퀴에 한번 넣어서 굴려서 내놓는다. 이것이 바로 삼십이상이 구족하며 삼십이응신이 모두 응해 주신다, 마음이 응해 주신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툰다 이런 거죠. 이 몸에 들어 있는 이 생명체가 전부 보살이 돼서 털구멍을 통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나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떠한 악이라도 잘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망하게 됐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자꾸 도둑질을 해 가지고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증거는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내가 그랬죠. "그 두 사람한테다 다 맡겨라!" 이랬어요. 그래서 맡기면서 그러라고 그랬죠. "너희들 둘밖에 이 회사를 일으킬 수가 없고, 너희들 둘밖에 도둑을 막을 수가 없고, 너희들 둘밖에 이 모두를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고 다 맡기고 돈을 벌어도 그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는, 그리고 승진을 시키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지금 회사가 잘되고 있어요. 그날부터 도둑을 안 맞아요. 허허허.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당신도 당신 배 속에 지금 어떠한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신, 나라는 이 존재를 아주 귀신처럼 그냥 높이 두지 말고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가 하상 뭡니까? 이 나라는 존재요? 저 가랑잎과 같아요. 한 철 나는 거. 한 철 났다가 가을이 오면 한 철 떨어지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몸 있을 동안에 공부하는 게 그렇게 귀중해요. 이것이 없으면 부딪침이 없으니까 공부 못 해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자기 주인공을 자기가 믿고 내부에서부터 파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진화되도록…. 그러면 이 의식 자체가 보살이 돼 가지고 자꾸 남도 건져 줄 수 있는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든지 무슨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하여튼 자기 살기 위해서 남도 살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부의 국토부터 잘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몸을 좀, 집을 좀 조용히 쉬고요. 그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0년 4월 22일 모건 힐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인격과 단절된 지식은 가짜다



이원식
금강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장애학생에 계단식 강의실 고집
서울 모 대학서 벌어진 無배려

장애학생 지원체계 확대됐지만
현실적 난관에 입학 포기 사례도
불이익 없게 교육여건 개선해야

외면적 여건만으론 해결 어려워
장애인 바라보는 의식 바뀌어야
"법정 스님의 無學을 되새길 때"

서울의 A대학의 한 수업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에… 계단식 강의실을 고집한 대학생들' 이라는 신문기사를 읽고 고등교육 현장이 얼마나 각박하고 인권 감수성이 취약한지 절감했다.

이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고,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강의실 리스트를 만들어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강의실이 리스트에서 빠진 것이다. 학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350m 떨어진 다른 강의실을 배정하려 했지만, 일부 비(非)장애 수강생들이 "동선(動線)을 고려해 수업 시간표를 짰는데 강의실 거리가 멀어지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에 따라 인심이 각박해진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불편함을 직면한다. 수강신청 때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가' '강의실이 1층에 위치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이나 소위 인기 있는 과목을 선점하는 것에 엄두조차 못 낸다. ATM기계나 학생식당 등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용하기 힘든 일도 다반사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기회 확대는 1995학년도부터 도입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도 시행이 대표적이다. 이후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과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들은 점차 늘어났다. 대학들도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도입한 100개가 넘는 대학들도 장애학생들이 겪는 이동 또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은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실제 대학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건물 입구의 턱, 경사로,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강의실 구조, 주차공간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미비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교육 환경적 여건을 이유로 입학 차체를 포기하거나 입학했더라도 자퇴하는 장애학생들도 다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환경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제2장 제2절)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외면적인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장애학생을 위해 제아무리 편의를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의 무(無)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삐걱거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은 비용 문제 이전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대중의 의식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불자이면서 대학에서 10년 넘게 사회복지학을 지도해왔다. A대학에서 있었던 사건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기본적인 의식의 문제이기에 가슴이 먹먹하다. 동시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실린 '무학(無學)이란' 글이 떠올랐다.

무학이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취가 없음을 가리킨다.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말고 관념의 유희에 춤추지 말며, 자유롭게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은 가짜요, 위선인 것이다.

社說

부처님오신날을 '화합의 축제'로

4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화합의 법등(法燈)이 불을 밝혔다.

올해 광장을 밝힌 봉축장엄등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던 탑등이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오고, 대통령 탄핵정국을 보낸 한국사회의 현 상황에 맞춰 '대국민 화합'이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점등식에는 세월호 노란 리본을 형상화한 등이 설치됐으며, 점등식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어찌보면 지난 3년 동안은 아픔의 시간이었다. 고등학생과 일반인 300여 명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중 9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촛불 민심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냈다.

아픔의 시간에서 시민들이 나왔던 곳은 '광장'이다. 광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주장했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노래했다.

이제 광장은 화해와 화합의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장에 불을 밝힌 법등은 아픔을 넘어 화해와 화합으로 나가자는 서원이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온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는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다. 부처님이 탄생 직후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과 땅 사이 가장 귀중한 것이 인간이라는 '인본주의 평등선언'이다.

올해 봉축은 아픔을 넘어 상생과 화해를,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기원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의 '행복바라미' 집중 모금이 4월 22일까지 펼쳐진다. 자비보시를 통한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불교계가 실시하는 '행복바라미'는 2013년 시작했다. 문화공연과 탁발이 접목된 행복바라미는 예상보다 높은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지역문화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활용한 기부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동참한 지역에서 불우이웃을 추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역에서 수익금이 집행되는 투명한 운영도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었다. 지난 3년 동안 행복바라미를 통해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1276명에게 5억 6300여 만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집중모금 기간 사찰 앞에는 목탁을 치며 모금을 독려하는 행복바라미 포교사들을 볼 수 있다. 수많은 이들이 길거리에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까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다. 불교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들 내부에는 본래 맑고 청정하며 물들지 않은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본래 완성된 부처이기에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드러내는 일이 바로 자비보시 행이다.

불자들의 자비보시행이 전통문화와 접목한 행복바라미로 뭉친다면 불교홍포와 인재양성,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이전과는 혁혁히 다른 성과를 나타낼 게 분명하다. 부처님 가르침은 실천하는데서 나온다고 한다. 주변의 이웃을 돕기 위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빛의 始原을 관하다

송마나 작가

아침빛이 바둑판만큼 아파트 앞 동의 벽면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창문을 열면 놀라 사라질 것 같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작은 빛 더미가 소리나 움직임도 없이 직사각형 모습으로 점점 면적을 키워 나갔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생기가 넘치자 빛은 옆 건물로 거침없이 나아갔다. 시선을 떼지 않았지만 빛은 마냥 팽창해서 그만 형태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두 눈을 뜨고서도 빛이 해체된 경계를 알지 못했다. 이제 빛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냥 빛난다. 그렇다면 '빛의 알'은 언제 부화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을까?

문득 덕산의 점심(點心)의 일화가 떠올랐다. 덕산이 배가 고파서 떡을 파는 할머니에게 점심을 달라고 하자 그녀가 물었다.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점심(點心)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덕산은 어느 마음에 점(點)을 찍어야 할지 쩔쩔매었다.

'빛의 알'의 지나간 과거는 알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깨어날 수 없고, 그렇다면 현재뿐인데 이마저도 순간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빛의 알'은 언제 깨어났을까? 빛은 나의 의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하얗게 빛난다.

> "붉은 색 아침빛과 한낮의 하얀 빛의 本有는 다르지 않다"

빛은 색깔도 변화시킨다. 붉은 아침빛이 어느새 흰빛으로 바뀌었다. 이때 흰색은 모든 색깔을 탈색한 무채(無彩)색이다. 칸딘스키가 말했던가?

"흰색은 물질적인 성질이나 실체로서 모든 색들이 사라진 세계의 상징이라고. 흰색은 무한의 세계. 이런 까닭에 흰색은 커다란 침묵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한다. 흰색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침묵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시작하기 전부터 무(無)요, 태어나기 전부터 무(無)인 것이다."

러시아인인 칸딘스키에게 몽골계의 동양인의 피가 흐른 탓에 그는 흰색에서 무(無), 즉 공(空)을 깨달은 것일까.

여명에는 붉은빛으로 붉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얀 빛이 빛나는 정오에는 눈이 부셔서 오히려 사물을 볼 수 없다. 하얀 무(無)의 세계는 칸딘스키가 말한 것처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만법의 바탕이지만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실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리라. 눈에 보이는 존재란 연기법에 따라 순간순간 깨어났다가 소멸하는 '연장적 연속체'인 것을.

그렇다면 붉은 색(色) 아침빛과 한낮의 흰빛의 본유(本有)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득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경구가 마음에 내려앉는다.

하얀빛이 방 안을 가득 비춘다. 내가 빛 속에 있다. 나와 빛을 분별할 수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염불(범음·범패)
무료교육
염불(범음 · 범패)을 배우고 싶으신 회원을 초대합니다.
염불 뜻을 알아야 소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 수 강 료 : 무료
■ 자 격 : 삭발 염의한 스님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내용 : 천도의식 뜻 해설 및 소리 (영남소리), 사물, 바라작법, 공양작법
■ 강 주 : 자운 스님
바라, 공양작법 - 해인 스님
■ 문 의 : 여여불음원
☎ 055)744-5300
❖ 회 비 : 십만원
단, 회비는 부처님 성지순례(1~2년 마다) 여행비로 비축
• 본인 염불소리 전문 녹음 및 CD제작 가능 •
여 여 불 음 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로 232-72 여여암

탈종공고
• 법 명 : 지명 (이승현)
• 승려번호 : 102-048
• 주 소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초로 91번길 24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삼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쳐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선운사 삼사순례안내



도솔산 선운사 전경

삼사 성지순례는 영험깊은 기도도량을 순례하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지극한 심신으로 업장소멸을 다짐하는 불교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강학과 수선도량 선운사는 미륵지장기도성지 도솔암과 참회수행도량 참당암이 자리잡고 있어 성지순례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경내에 대형저수지(도솔제)가 자리잡고 있어 방생법회와 삼사 성지순례의 명소입니다.
유서깊은 기도도량의 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삼사순례 안내

■ 1코스 : 선운사 → 도솔제(방생) → 참당암 → 도솔암



■ 2코스 : 선운사 → 도솔제(방생) → 문수사(고창) → 내소사(부안)



선운사 강학과 수선 도량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해동 제일 미륵 · 지장보살 성지



참당암 참회수행도량



청량산 문수사 (문수보살 기도성지)



능가산 내소사 (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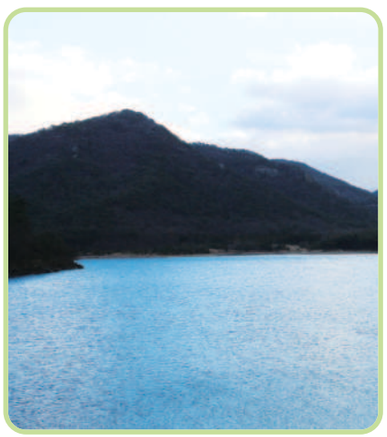
선운사 지장보궁
금동지장보살 (보물 279호)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지장보살 (보물 280호)



참당암 지장전
석조지장보살 (전북 유형문화재33호)



방생 최적지 도솔제
경내 차량이동 5분거리에 위치



오시는 길

- 서울출발 : 경부고속도로 → 천안 논산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 (약 3시간 소요)
- 부산출발 : 남해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 (약 3시간 소요)
- 대구출발 : 88올림픽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 (약 3시간 소요)

※ 네비게이션 검색 : **선운사**
※ 각 코스별 대형버스 진입 가능.
사전 연락주시면 사찰안내 및 방생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 선운사 종무소 063)561-1422 / 도솔암 063)564-2861 / 내소사 063)583-7281 / 문수사 063)562-050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현대불교 Mandala

현대불교 제 1144 호

문화
유나방송
개국 10주년 콘서트 B5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B1

“수현아! 네가 남긴 사랑, 내가 마저 전할께”



아들의 추모비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근처에서 맛있게 식사하며 밝게 웃는 분들을 보면 행복하다는 신윤찬 씨. 그녀의 가슴은 아들을 잃은 날 퍼렇게 멍이 들었지만, 그 멍울을 딛고 지금은 가슴속에 자비의 꽃이 활짝 피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에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알리고 간 故이수현 씨의 모습이 겹쳐진다.

그대는 자비보살

義人이수현 어머니 신윤찬 씨



故 이수현 씨 생전 모습.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다.

아픔 딛고 선택한 희망 ‘봉사’
부산 어린이대공원서 급식 16년
매주 130여 어르신에게 식사 제공
아들 밥상 차리듯, ‘정성’ 다해
뜻 모은 도반 모여 ‘보현회’ 구성

사랑 · 관용 전한 아들 수현이
수현 씨 사후 일본 소송 제기 권유
가족들 “아들 뜻 맞지 않아” 거절
아들에게서 ‘사랑 · 관용’ 배운다
“수현이가 한일 가교 될 것 생각”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던 신주쿠 신오쿠보역 선로에 일본인 세이코 씨가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발만 구르고 있던 그 때, 한 청년이 선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탈출하기엔 촉박한 시간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다. 선로에 뛰어든 청년은 바로 한국인 유학생 故이수현 씨(1974~2001). 이 씨의 숭고한 희생은 한일 양국의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많은 이들이 의사(義死)한 故이수현 씨를 칭송했지만 그의 어머니 신윤찬 씨(69)의 마음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그대로였다. 슬픔을 이길 수 없어 매일같이 아들의 추모비가 있는 부산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신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대공원 앞 무료급식소.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조금 더 의미있게 하기로 하고 시작한 무료급식봉사가 올해로 16년 째다. 4월 10일 무료급식소에서 신 씨를 만나 그 사연을 들어보았다.

봉사로 아픔 극복, ‘희망’이 약

무료급식 현장에서 만난 신윤찬 씨는 아들에 대해 말을 꺼내자 큰 눈에는 금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신 씨는 “아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못살 것 같다. 사람들이 아들을 기억하는 동안 아들이 마치 곁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며 눈물을 참고 담담히 말을 이어갔다.

“수현이의 뜻을 이어가고 실천하면 수현이가 저희 곁에 영원히 남아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슬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사고 후 몇일 뒤 일본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수현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머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수현이가 바라는 일이 아닐겁니다’라구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시 다 잡았습니다.”

당시 신 씨는 아들의 기념비가 있는 부산 어린이대공원으로 매일 갔다. 그 곳에 가면 아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는 생각에 아들을 잃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기념비에서 아들을 보고 내려오는 길, 신 씨의 눈에는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어르신들의 긴 행렬이 들어왔다.

“왜 이렇게 줄을 서 계세요?”라고 묻는 신 씨에게 어르신들은 “배가 고파서”라고 했다. 이들의 모습은 배고픔에 지쳐 피곤해 보였고, 외로움과 가난에 시달린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한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몇 시간 씩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보는 순간 신 씨는 결심했다. 이수현 씨가 세상을 떠난 후 한달 후인 2001년 3월부터 이렇게 신 씨는 무료급식 봉사에 나서게 됐다.

신씨는 일주일에 한차례씩 봉사단체인 ‘아름다운사람들’과 함께 무료급식에 나섰다. 신 씨는 어르신들에게 한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밤새 음식재료를 준비했다. 학창시절 아들에게 차려준 그 밥상을 떠올리며, 마치 아들에게 차려주는 밥상인냥 정성을 다했다.

10여 년 전에는 국수나 라면이 무료급식의 주 메뉴였지만 신 씨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소화가 편한 계란찜, 나물, 명태전, 고등어 요리 등 영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매일 국과 밥, 반찬을 만들어 대접했다.

16년 동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메뉴도 다양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기준은 여전히 건강을 위한 영양식이다. 신 씨가 밥을 고집하는 이유는 대부분 아침을 거르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기왕이면 밥이 더 속을 편하게 해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에서 쌀을 지원해 더 풍요롭게 준비 할 수 있어 기본 재료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재료비는 신 씨가 담당하고 있다. 신 씨는 매주 한차례 1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대접했다.

이런 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변에서 서로 일손을 보태겠다는 도반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평소 함께 불교공부를 했던 이들부터 봉사현장에서 만난 이들까지 신 씨의 뜻에 공감한 이들이 모이며 급식소는 커져갔다.

도반이 함께 하는 어울림 세상

“무료급식소가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가스불이 하나밖에 없어 국을 끓이는 것도 어려웠지요. 설거지 할 공간도 부족해서 비가 오거나 해도 밖에서 그릇을 씻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여기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도 점점 늘어나 300여 명이 평균적으로 찾고 있다. 신 씨는 이들이 봉사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참여 횟수를 일주일에 한번에서 한달에 한번으로 바꿨다.

“봉사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말을 참 이쁘게 하십니다. ‘지금껏 봉사를 많이 하셨으니 저희에게도 기회를 좀 주세요’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날 방문한 어린이대공원 무료급식소 현장에는 10여 명의 봉사자들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큰 주걱으로 음식을 휘휘젓자 하얀 김 사이로 활짝 웃는 신 씨의 얼굴이 보였다. 급식을 어느정도 마치자 신 씨는 냄비에 남은 밥을 눌러 담았다.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4 출판 현진 스님의 〈좋은 봄날에…〉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한국과 일본 감동시킨 청년
이수현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수현 씨는 2001년 1월 26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시민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안타까운 사고 발생 직후 일본 전역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기리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부산교육청은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의사자 이수현 추모비'를 세웠고 모교였던 고려대와 부산 내성고교, 낙민초교에서도 그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비와 동상을 세워졌다.

일본 미야기현 시로이시시(白石市)에는 한일우호기념비와 함께 이수현 씨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으며 도쿄 신오쿠보역과 그가 공부하던 도쿄 아까몽까이 어학교에도 '이수현 현창비'가 세워졌다. 최근에는 이수현 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본에서 제작돼 상영되기도 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자리한 故이수현 씨의 추모비를 두고 어머니 신윤찬 씨가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그녀는 생전 이수현 씨가 책임감 있는 강한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무료급식소에서 직접 국을 끓이고 있는 신윤찬 씨



2016년 1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15회 이수현 추모식

"사랑과 관용 앞에 韓·日은 한가족"

'義人이수현 어머니 신윤찬 씨'

B1면에서 계속

봉사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누룽지로 식사를 마친다는 회원들은 "회장님의 누룽지 탕을 먹어야 봉사가 마무리된 것 같다"며 "우리는 누룽지 중독! 봉사 중독!"이라며 크게 웃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2~3개는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봉사 중독이라는 말에 그동안 나눔으로 다져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

한 봉사자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라며 말하자 그 회원과 눈을 마주하며 신 씨는 망설임 없이 "당연하지!"라며 큰 미소로 답했다. '혼자가 아닌 세상'이라는 말은 봉사의 의미를 강조한 듯 했다. 하지만 신씨는 "이분들이 자신을 움직이게 했다"고 했다. 함께 해준 도반들이 있었기에 살아 갈 수 있었다는 말로 들렸다.

급식소에는 '부산 최초 노인무료급식소 운동 발상지'라고 적혀있었다. 봉사팀 이름으로 빼곡히 적혀 있는 달력에는 '보현회'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신 씨가 이끄는 봉사팀 이름이다. 어떻게 '보현회'라는 이름으로 지었느냐 묻자 신 씨는 아들 이수현 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부산 정수사 신행봉사단체 이름 중 하나라고 했다.

보현보살의 이름을 설명하며 "행덕(行德)이다.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실천을 힘주어 말하는 신 씨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가득했다.

한일 관계 개선, 가교 역할도

故이수현 씨의 희생 후 신 씨에게 주변인들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일본 당국에 소송을 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 씨와 가족들은 그것은 아들의 뜻과 맞지 않다고 거절했다. 대신 신 씨는 일본정부에 안전시설을 지하철에 설치해 줄 것을 권유했다. 그 후 도쿄 신오쿠보 전철역에는 철로에 떨어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과 비상정지 장치가 마련됐다. 이후 일본 10대 여학생이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졌으나 대피시설 덕분에 목숨을 구하기도 했으며 같은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19세 여학생이 정신을 잃고 선로로 떨어졌으나 주변 시민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화를 면하기도 했다.

국적 떠난 인재불사 앞장

故이수현 기린 LSH장학회 설립

"수현인 생전 책임·꿈 강조해"

18개국 790명에게 장학금 전해

세계에 희망 전하는 역할 자처

이러한 역할에 대해 신 씨는 '자비'와 '사랑'이야 말로 진정한 인류애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 씨의 아버지, 故이수현 씨의 외할아버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였다. 강제징용으로 탄광에서 노역으로 고된 삶을 보냈다. 신 씨의 아버지는 해방 직전 죽음의 직전에서 살아 돌아왔다.

"한 겨울이었어요. 해방 전 일본사람들이 호수 얼음을 깨고 강제동원 된 이들을 강제로 집어 넣었어요. 어떻게 탈출을 하셨는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죠. 옷에 얼음이 맺혀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어릴 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 여파로 아버지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신 씨는 이런 아픔 조차 넘어선 사랑을 아들에게서 배웠다고 했다.

"수현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예요. 원망과 미움보다, 사랑과 관용의 힘이 더욱 크다는 것을요. 부처님 인연으로 만난 모든 이들이 바로 내 아들이자 부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아픔을 겪었지만 사랑과 관용 앞에서는 모두가 가족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 한일 양국의 가교가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삶… 바른 마음에서

신 씨는 故이수현 씨에게는 엄한 어머니였다고 했다. 아이들을 키우던 과거에는 이불장에 회초리가 항상 걸려 있었다.

"기준을 확고히 잡아 단호하게 교육하는 부모들의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할 정도로 신 씨의 교육관은 확고했다.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며 바른 인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첫번째 역할이라는 것이 신 씨의 지론이었다.

"어릴 때는 골목대장처럼 활동량도 많았고 청소년기에는 호기심도 많아 컴퓨터를 사줬더니 장난감처럼 분해하고 고치고 하더군요. 태권도 빼고는 학원을 다닌 적은 없었어요.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독학하다시피 했죠. 아들은 다른 곳에 시간 뺏기는게 싫었던거 같아요."

신 씨는 故이수현 씨가 중학교 때 자신이 직접 사온 액자를 잠자리에 누우면 항상 볼 수 있도록 천장에 붙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배움에 철저하고 의무에 충실 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가 뚜렷하며 현실에 강하면서 자신을 책임지는 꿈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하소서. 고난에 도전 하고 정의에 용감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패자엔 관용하고 자신을 다스려서 헛되지 않은 삶을 고백하는 자녀로 성숙하게 하소서' 액자에 담겨 있는 글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이었다. 故이수현 씨는 그 글을 너무 좋아 했다고 한다.

못다한 사랑, 다른 아이들에게

신 씨는 이런 아들에게 못다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는데도 나서고 있었다. 이수현 씨의 못다한 배움의 꿈을 일본에서 공부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이어 받아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 씨와 그 가족들은 故이수현 씨 앞으로 답도한 성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2002년 1월 LSH아시아장학회(Lee Soo-Hyun 아시아 장학회)가 발족되고 그해 10월 17일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어 아시아 각국의 학생(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등) 93명에게 한 학기 장학금(약 15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장학금은 전달됐다. 이후 2016년 10월 19일 일본 동경에서 제15회 장학금 수여식까지 18개국 학생 790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수현이가 못다한 공부를 다른 학생들은 이어가도록 돕고 있어요.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여전히 50명이 넘는 일본 유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신 씨와 가족들은 이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와 내성고등학교에 '이수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신 씨는 故 이수현 씨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희망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꾸준히 담당하고 쉬지 않을 것이라 의지를 전했다.

"이 세상은 여행과 같아요.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죠. 항상 여여한 마음이고 평안해요. 단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이 모든 인연들을 만날 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려 해요. 그 것이 바로 우리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하성미 기자



가로×세로 15㎝, 1점당 희망가는 10만원이며, 계좌 입금 후 전화주십시오!
국민은행 638701-01-453575 (예금주 : 청담아트월드) ☎ 031-912-7112



우리가족의 보금자리에는 매일 성취 등을
밝히며 지장보살·관음보살을 뵙습니다!
本人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약사여래불·
포대화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모델의 친환경 목재로 완전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실용시안특허를 받아 깎고 다듬고 못 하나 치지 않고 끼움 틀작업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혼을 불어 넣은 장인의 작품입니다!
평상시에는 本人이 원하는 등불을 켜두시고 기도시에는 별도카드에 부착된 관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포대화상으로 교체한 후 염원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가피와 원력과 에너지를 듬뿍받아 소원성취하시고 부자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전기료는 月50원정도 LED부착)
부디 평생 꺼지지 않는 나만의 등불을 밝혀 강건하시고 소원성취를 이루십시오!
■ 친척, 친지, 윗분들, 자손들, 도반, 고마운분들, 생일, 생신, 축하선물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 집무실, 공부방, 침실, 안방, 거실, 병실에 필, 성취 등입니다!
■ 성취 등 뒷면에는 **띠별호신부(저작권소유)**를 부착해드립니다!

※ 제작과정을 직접보고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을 신청하십시오!
(청담아트월드 총괄기획실장 서재명 010-5669-9572)



현재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는 기존의 인등을 철수하고
저희 회사의 소형목재 인등으로 교체 불사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스님께서는 동영상을 보신 후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찰담당 상무 : 김수철 010-8881-0474



사형의 두려움, 남을 위한 기도로 극복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⑧ 어느 사형수의 108배



그림 · 박구원

다정도 병이라고 했던가. 나라 전체를 몇 달 동안 흔들어 놓고도 끝내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에게 그토록 상처를 받았건만, 막상 한 나라의 수장이던 이가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가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니 말이다. 세 평쯤이라던가, 그 좁은 공간에서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에 관심들을 가질 무렵, 한 종편 방송에 나온 패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형을 받고 구치소에 있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매일 108배를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건강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분히 상기된 표정으로 이번 전직 대통령도 108배를 하면서 지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지 않겠느냐는 안을 내놓는 것이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도무지 자신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에구, 절을 하면 알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터라, 그의 제안이 귀에 쏘옥 들어왔다. 정말 108배를 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50년 동안 한결같이 교도소 교정교화에 인생을 바친 삼중 스님을 최근 뵙게 되었다. 스님의 은사이신 손경산 스님에 대해 알아볼 것이 있어 찾아뵈었다가 여쭈었다.

"108배를 하면 좋을 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불자들만이라도 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교도소 안에서 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글쎄요, 종교가 다른 그분이 108배를 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고, 오랜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사람이 매일 108배를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한 일을 얘기해 보지요."

15년 전, 부산의 한 절에 머물면서 교정교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낼 때였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는데, 여든 살은 족히 되어보였다. 금방 주저앉기라도 할 듯 노쇠한 그 분은 연신 '미안합니다'는 소리만 되풀이한 채 쉬 입을 떼지 못했다. 언제나 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찾아오는 이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될 수 있으면 문제를 함께 풀려고 노력하고 있던 스님이었는지라, 뼈만 앙상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떤 이야기도 괜찮으니 말씀을 해보시라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스님, 제 아들이 사형수입니다.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사형수가 되었으니 어미 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며, 누구에게 무슨 부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면회를 갔더니, 아들이 스님을 좀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꼭 면회를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한 스님은 당시 바쁜 일들이 산적해 있어 그 일을 깜박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생각이 나서 전화번호를 찾아보았으나, 어디에 써놓았는지 보이질 않았다. 무책임한 자신을 책하고 있을 즈음,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면목 없습니다만 한번 꼭 가셔서 제 아들을 좀 만나주세요."

아직 만날 인연이 안 되려고 그랬는지, 또 바쁜 일에 약속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수감자들을 만나며 교화에 전념하고 있던 어느 날, 서울구치소에서 한 사형수를 만났다. 첫눈에 유난히 정이 간 그에게 물었다.

"어머님은 생존해 계시는가?"

스님이 사형수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라고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가장 가슴아파하는 걸 보아왔기 때문이다. 자신이 벌을 받는 것보다 어머니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을 더 못견뎌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일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스님, 진작 뵈올 인연이 있었는데,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사연을 털어놓는데 보니, 그는 스님이 까맣게 잊고 있던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이래저래 그에 대한 스님의 관심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스님을 만나 불교를 알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내가 벌여놓은 것은 내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108배를 시작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나를 낮춰 참회하지 않으면 자신이 벌여놓은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형수는 하루에 열 번 죽는다고 한다. 뚜벅뚜벅 복도를 울리며 걸어온 교도관의 발걸음이 자신이 갇혀 있는 방문 앞에 멈출 때마다 죽음의 순간을 맛본다는 것이다.

'이제 가야할 때인가?'

하루에 열 번 그런 지옥을 경험하는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형집행을 멈추고 있을 뿐,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스님은 사형수들과 면담 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교도관 발걸음 옮길때마다 집행 공포
흔들리는 마음 바로잡기엔 '절' 제격
108배 100일 기도 네 번하며 변화

흔들리는 그들의 내면을 읽는다고 한다. 그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간 속에서 그는 매일 108배를 하면서 두렵고 괴로운 시간들을 견디어 나갔다.

오체투지의 자세, 즉 머리를 땅에 대고 몸을 굽히며 합장하는 동작을 되풀이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이뤄진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위로 치솟아 있는 뜨거운 화의 기운이 진정되어 아래로 내려가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몸 아래쪽의 차가운 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서 신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팔과 다리 등 온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레 기를 단련하게 되는 것이다. 좁은 공간에 갇혀있으면서 하루 15분 정도의 시간은 그에게 기적과 같은 선물을 주었다. 자신에 대한 분노와 언제 세상을 떠나야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매일 반복하는 108배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정화되면서 정신적인 깊은 안정감을 얻은 것이다.

사형수로 15년째 수감되어 있는 그는 그동안 108배 1000일기도를 네 번 마쳤다. 스님은 그를 계속 보아오면서 그가 마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성자처럼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당뇨로 고생하다가 몇 년 전부터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스님에게 신장을 이식해드리겠노라고 하는 걸 스님이 마다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로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그 마음만 받겠다고 하자 그는 스님을 위해서 108배 천일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나를 위해 시작한 기도가 드디어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뀐 것이다.

"남을 위한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08배 연재 글을 열심히 보고 있다는 후배가 한 말이다. 백번 공감 되는 말이다. 내 삶이 무겁고 힘들수록 더 그렇다. 그런데 절을 하다보면 내가 지고 있던 짐들이 가벼워지면서 여유가 생기다보면 남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게 된다. 그리고 절을 해본 사람들은 자신이 힘겹게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감이 사실은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도 그랬을 것이다. 절을 하면서 자연스레 정화가 되다 보니 자신을 사형수로 만든 인과를 명확히 보았을 것이고, 무한히 참회했을 것이다. 참회하다가 보니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무정의 생물에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미쳤을 것이다. 그 감사가 남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을 것이다.

모든 수행이 그렇듯 108배 수행에서 가장 먼저 얻어지는 것이 정화다. 나는 그 정화를 기적이라 생각한다. 정화가 아니면 무엇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늘 무겁게만 느껴지는 삶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수행의 영원한 숙제인 '변화'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또 하나 그를 정화시킨 것은 그림 그리기였다. 어느 날 그가 그린 스케치를 스님이 우연히 보시고, '어, 그림 잘 그리네?' 한 마디 했던 것에 용기를 얻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108배를 하면서 천일기도를 여러 번 회향하는 동안 그는 마치 수행이라도 하듯 그림그리기에 몰입했고 전국서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대 교수들로 이뤄진 심사위원들이 그의 그림을 대상으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은 것은 수없이 반복된 108배 정화의 힘 때문이었을 것이다.

삼중 스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안성 영평사 마루에 걸려있는 그의 그림을 보았다. 대상을 받았다는 소쿠리에 담긴 달걀꾸러미의 연필 그림은 문외한인 내가 보아도 그 섬세한 스케치에 담긴 공력이 빼어나 보였다. 그 곁에 있는 연꽃 그림 또한 실물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요즘도 스님은 그를 찾는다. 일주일에 두 번씩 투석을 받는 힘든 몸으로 그를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언제 사형이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큰 힘을 얻기 때문이다. 그를 보고 돌아올 때마다 겨우 몸에 깃든 병 하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이다. 스님께서 한번 같이 면회를 가자고 하시니, 언제 따라나설 작정이다.

108배는 정말 힘이 세다. 그 무엇도 감당할 힘이 생기니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몸만 움직이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니까. 그나저나, 앞에서 말한 그분, 108배의 이 센 힘을 경험할 날이 과연 올까?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두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 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전기초, 쌍용촛대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4.12~2017.4.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내 곁의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라"

좋은 봄날에 울지마라

현진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4천원



불교계 대표 문사인 청주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오른쪽 사진〉의 에세이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이번 책에는 직접 꽃나무와 농사를 돌보고 계절의 오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청정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승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청주 마야사서 텃밭 농사를 짓고 사찰 정원을 가꾸며 사는 스님에게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은 일상이자 수행이다. 마야사의 꽃밭을 보기 위해 사찰을 찾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스님은 생명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한다.



나와 마음 맞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 삶이려니 인정하는 태도 필요

모두 사라질 인생, 남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편안히 사는 길

생명으로 풍성한 스님의 정원

"모름지기 심는 것이 많아야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 현진 스님의 생각이다. 절을 지을 때도 절보다 나무를 먼저 심었다. 건물은 빨리 지을 수 있지만 나무는 시간의 깊이를 지녀야 해서다. 봄이면 백일홍과 황금아카시나무 등을 심고, 텃밭에는 고구마와 땅콩 등을 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농약을 치거나 함부로 가지를 잘라 내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베어 낼 때도 톱질하기 하루 전에 막걸리를 부어 놓고 나무를 쓰다듬으며 미안함을 전한다. 생명을 아끼는 스님의 태도와 생명이 새움을 틔우고 자라나는 과정을 엿보는 것 또한 이 책의 재미다. 인생사 역시 자연과 다르지 않다. 비 오고 눈 오는 일처럼, 사람의 인생에도 고단한 날이 있다. 그럴 때엔 꽃에 기대 위로받기도 하고 눈물이 날 때면 울면서 그 시절을 견뎌내자는 것이다.

인간관계서 너그러워지는 법 소개

"지금 사랑하라"는 것이 현진 스님의 가르침이다.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대목에서 인간관계에서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날씨도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이 번갈아 오듯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삶이겠거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소한 문제로 다툴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백 년 뒤에는 모두 사라질 인생. 남을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 잡고, 붙들고,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가 독을 품고 사는 삶이다. 살다 보면 내가 복수해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복수해 주는 경우가 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과의 율동이다. 그러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내 곁의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라.

이 책은 4부 구성인데, 각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을 맞이하는 풍경을 담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사계를 따라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철마다 꽃과 나무가 피고 지는 광경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세상사에 치여 봄이 와도 봄이 오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 스님은 "백 마디 말보다 자연의 풍광들이 말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우리를 자연의 자리로 초대한다. 그 외에도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에는 비교하지 않는 삶에서 오는 행복, 타인을 미소로 대하는 태도 등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빼곡히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현진 스님은?

월간 〈해인〉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절집의 소소한 일상과 불교의 지혜를 독자에게 꾸준히 전달해 왔다. 현재 충북 청주 근교에 마야사를 창건하여 꽃과 텃밭을 가꾸며 지낸다. 펴낸 책으로는 〈산 아래 작은 암자에는 작은 스님이 산다〉 〈삭발하는 날〉 〈잼있는 스님 이야기〉 〈산문, 치인리 십번지〉 〈두 번째 출가〉 〈오늘이 전부다〉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 〈언젠가는 지나간다〉 〈번뇌를 껴안아라〉 등 총 15종이 있다.

책속의 밑줄 긋기

▲저녁나절에 깨알같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풀을 매는 작업을 하다가 그 속에 여린 백일홍이 여러 개 자라고 있어서 반가웠다.

옆집 에서 씨앗이 날아 왔을까…. 모종삽으로 떠 와서 화단 주변에 심었다. 이 꽃을 어디서 옮겨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이것이 오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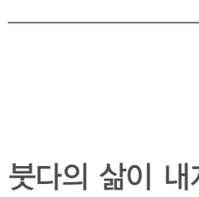
▲이웃들에게 자주 전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사는 일이 명예를 높이고 돈 버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꽃을 보고 구름을 만나고 흙을 만지는 일도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다. 인생의 관심 전부가 오직 돈 모으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닌 아름다움을 닫고 사는 삶일 것이다. 이 햇살 좋은 날, 꽃들이 전하는 법문에 귀 기울이면서 삶을 위로받기를.

▲겨울 숲은 이런 자세로 이 추위를 견디고 있으므로 우리들도 약간의 고난이나 시련쯤은 견뎌야 할 것이다. 인간이 괴로운 것은 기회주의자들처럼 욕심을 부리니까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저 나무들처럼 제자리를 의연히 지키면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역경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녀야 한다.

일타 스님 명쾌한 보살계 법문 해설서

범망경보살계

일타 큰 스님 지음 | 효림 펴냄 | 1만 5천원



일타 스님은 1992년에 5책으로 된 〈범망경보살계〉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책은 2000년대 초에 절판되었다. 원고 총 6,000매라는 방대한 분량을 다섯 권으로 발간한 데다가, 그 책의 내용이 너무 깊고 상세해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연 도태된 것이다. 그러나 평생 계율을 연구하고 보살계를 설한 일타 큰스님 특유의 해설이나 그 핵심 내용마저 단절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월간 〈법공양〉서는 핵심 내용을 가려 뽑아, 2008년 11월호부터 2012년 12월호까지 50회에 걸쳐 연재했고, 그 글들을 모아 다시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게 됐다. 일타 스님의 명쾌하고 깊이 있는 보살계 법문은 불자라면 누구나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며, 읽고 또 읽으며 간직해야 할 책이다.

보살계 속에는 불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이 낱낱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10중계와 48경계로 이뤄진 보살계 속에는 대승불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범망경에 대한 기초 지식〉과 대승불교의 보살이 지켜야 할 무거운 계율인 '10중대계', 가벼운 계율인 '48경계'로 나눠져 있으며, 계율 하나 하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올바른 불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서는 범망경에 대한 제목 풀이, 범망경을 최초로 번역한 역경승 구마라집의 전기와 해설서들을 소개하고 있어 범망경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제 1장 〈십중대계〉서는 제 1중계인 '살계:살생하지 말라' 서부터 제 10중계인 '방삼보계: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까지 차례대로 설명한다.

제 1 '살계' 서는 살계를 제일 앞에 둔 까닭, 살생업의 과보, 자비심과 효순심에 대해 강조한다. 제 2 '도계' 서는 투도 업의 과보와 함께 복덕을 지으며 살 것을, 제 3 '음계' 서는 음란하지 말 것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깨우쳐 준다. 제 4 '망어계' 서는 망어의 여러 가지 유형과 과보, 살리고 깨우치는 망어계에 대해 설하며, 제 5 '고주계' 서는 술을 팔지 말고 지혜롭게 살 것을, 제 6 '설사중과계' 서는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교화할 것을, 제 7 '자찬훼타계' 서는 스스로를 칭찬 말고 하심할 것과 칭찬도 비방도 마음에 두지 말 것을 설한다. 제 8 '간석가훼계' 에서는 나의 것을 아끼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은 주라는 가르침을, 제 9 '진심불수회계' 서는 성을 내어 참회를 물리치지 말 것을, 제 10 '방삼보계' 서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고 믿음과 정법에 입각한 수행을 할 것을 각성시켜 준다.

제 2장 〈사십팔경계〉 속에는, 우리 불가서 고기와 오신채를 먹지 못하게 하는 까닭(제3경계, 제4경계)과 함께 병든 이를 간호할 것(제9경계), 중생을 방생하고 구제해야 하는 까닭(제20경계), 원을 세우고 맹세하는 법(제35경계, 제36경계), 복과 지혜를 닦는 법(제39경계), 악인에게 계를 설하지 말 것(제42경계), 경전에 공양하는 법(불공양경전계), 중생을 교화하는 법(제45경계), 설법하는 법(제46경계) 등 불자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한다. 책의 끝으로는 10중대계와 48경계의 '유통분'에 해당하는 경문이 실려 있는데, 이 경문까지 모두 읽고 나면, 어둔 밤에 밝은 등불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과 같고, 병든 이가 쾌차함을 얻음과 같은 환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초기불교 경전 통해 본 붓다의 삶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나카무라 하지메, 타나베 쇼우지 지음 | 이미령 옮김

솔바람 펴냄 | 1만 5천원



이 책은 부처님 말씀과 행적을 그대로 담은 초기불교 경전들을 통해 본 붓다의 삶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처님 당시의 시대상과 재가신도 모습들, 붓다의 출가서 입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으로 보여준 수행자로서의 인간 붓다를 만날 수 있다. 저자인 나카무라 하지메는 책 서문서 "2500년 전 인도서는 새로운 도시형 사회가 열렸고,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보편적인 인간 관계와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윤리사상이 요구됐다"며 "극도로 혼미한 시절에 붓다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집착을 떠나고 깨달음을 얻는 길로서 보살의 길을 설해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지녀야 할 마음 가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서 붓다는 어지러운 정세의 인도사회 현실속에서 집착을 떠나 깨달음을 얻는 길로 청정행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념이나 형이상학으로서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현실서 괴로움을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임을 설한다. **김주일 기자**



동서양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마음 힐링'

인터넷 '유나 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콘서트

'건반위의 음유시인' 마이클 호페 초청
5월 13~20일, 구미 포항 서울서 공연
피아노 해금 팝페라 등 아름다운 향연
"앞으로 방송영상도 유투브에 업로드"



마이클 호페는 유나 방송 7주년 기념 콘서트에 이어 10주년 기념 초청 공연에 참여하며, 다시 한 번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4월 20일 LG아트센터서 열린 내한공연 모습.

마음공부 전문 인터넷 방송 '유나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힐링 음악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유나 방송은 'You(너)'와 '나'를 뜻하는 말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든 우주 생명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불이(不二)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2007년 정목 스님과 김재진 시인에 의해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47개국 7만 청취자들을 확보, 마음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마음공부 및 명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채널이 다수 생겼지만, 유나 방송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접근성으로 두터운 고정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은 △정목 스님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월) △최인원 한의사의 '두드림의 선물 EFT'(월) △김열권 법사의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화)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 '괜찮아지려면 꼭 해야할 게 있어'(수) △이윤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전문강사의 '마음을 만지는 대화'(수) △신행모임 고요한 소리(수) △나덕렬 교수의 '앞쪽형 인간'(화) △박민근 독서치료연구소장의 '치유의 책읽기'(목) △김재진 시인의 '가슴에 남는 음악(화, 금) 등으로 구성된다.

10주년 공연은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마이클 호페 초청 콘서트로 구미 · 포항 · 서울서 차례로 열린다.

마이클 호페는 '건반 위의 음유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한국에선 드라마 '가을동화' 삽입곡 '잊을 수 없는 마음(Unforgetting Heart)'과 광고 배경음악 '링컨의 애가(Lincoln's Lament)'로 유명하다. 이번 공연은 마이클 호페의 4번째 내한으로, 유나 방송의 7주년 기념 콘서트에도 참여한 바 있다. 마이클 호페와 유나 방송의 만남은 공동대표 정목 스님, 김재진 시인과의 인연으로 이뤄졌다.

김재진 대표는 "마이클 호페는 대중적이진 않지만 음악이 매우 훌륭하다. 정목 스님과 내가 원래 마이클 호페의 팬이라 내한공연을 했을 때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당시 마이클 호페에게 유나 방송에 초청하고 싶다고 권유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10년 전보다 마음공부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유나 방송은 특별히 홍보한 적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줘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뿐 아니라 유튜브로도 방송 영상을 업로드 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내 인생의 순간들'을 테마로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 음악들이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신날새 해금 연주가와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뜨레보치가 협연한다. 피아노와 해금, 바이올린 팝페라의 아름다운 향연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 공연 세부일정은 △구미-13일 오후 5시 강동문화복지회관 △포항-19일 오후 8시 포항시청 대잠홀 △서울-20일 오후 7시 한전아트센터다. 정목 스님은 서울 공연에만 출연 예정이다. (02)577-059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김지욱의 '초혼' 서울연극제 오른다

5월 4~14일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

불자 연출가 김지욱 교수의 작품 '초혼'이 제38회 서울연극제 무대에 오른다.

'초혼'은 1980년대 극단 '동랑레퍼토리' 정기공연서 초연된 작품이다. 김지욱 교수는 이 작품을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재구성해 이번 서울연극제서 재연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대사 없이 '아이고'란 감탄사 하나로 이뤄지며, 망자의 혼을 불러내 이승에서 한을 달래주고 저승으로 고이 잘 보내게 하는 위령제 형식을 취한다.

김지욱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시대의 업을 감당한 분들이다. 우린 모두 공업중생(共業衆生)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슬픔을 등한시 할 수 없었다"며 "모두와 함께 공감하고 슬픔을 나눠야겠단 생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5월 4~14일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시간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및 7시, 일요일 오후 4시다.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전석 3만원이다. 단체는 (20인 이상) 1만원, 연극협회 · 학생 · 예술인은 50% 할인된다.

김지욱 교수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해 미국 Sarah Lawrence College에서 연극연출 실기석사(Master of Fine Art)를 취득했다. 극단 The Creative Minority 대표 및 서울예술대 연극과 겸임전임강사 등 역임했다. 현재 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뮤지컬전공 교수 및 극단 삼류극장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제38회 서울연극제는 4월 26일~5월 28일 서울 대학로 일대서 개최된다. (070)4205-1201

박아름 기자

불교미술의 스승, 인류의 스승을 그리다

동국대 불교미술과 교수진 '2561, 석존' 展

불교 인재 양성의 중심, 동국대 불교미술과 교수진이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한 기획전을 마련한다.

스페이스선+ 인드라망 프로젝트는 '2561, 석존' 展을 4월 19~25일 종로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개최한다. '석가불의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 10명이 참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각자의 시각에 따라 조명했다. 참여 작가들은 고승희, 김종섭, 김창균, 도현, 마애리, 박경귀, 박철종, 이영미, 이재윤, 조수연 교수로 구성됐다.

김창균 교수의 작품 '바뀐 세상-전도(顚倒)'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좌선할 때 손 모양에서 오른손을 풀어 오른쪽 무릎에 얹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모양)을 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전도된 형상으로 표현했다. 어지러운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사방을 두루 향하여 세상을 회피하지 않고 관조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렸다.



김창균, 바뀐세상-전도(顚倒), 판화에 채색, 42X32cm

박경귀 교수의 '보리꽃 선족'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뤘을 때 모습이다. 부처님이 걸친 옷을 마치 조각보나 그물망이 얽혀있는 형태로 그린 것은 연기적 세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밖에 김종섭 교수의 '싯다르타의 길', 고승희 교수의 '산화(散華)', 도현 스님의 '비밀집회아촉32존만다라', 마애리 교수의 '열반', 이영미 교수의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하다' 등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02)732-0732

박아름 기자

'어린왕자'가 보성 대원사에 나타났다!

생택쥐페리재단 주관 '2017 어린왕자 특별전'

동심의 상징 어린왕자가 백제 천년고찰 보성 대원사에 나타났다.

생택쥐페리재단 주관 '2017 어린왕자 특별전'이 보성 대원사 티켓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벚꽃축제와 함께 열린다. 4월 8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1년간 이어진다.

생택쥐페리재단은 2016년부터 한불수교130주년 기념 우리나라서 어린왕자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대원사 전시는 5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대원사 벚꽃길 5km를 지나면 만나는 티벳박물관의 첫 번째 공간에선 생텍쥐페리가 실제로 사하라 사막에 추락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기적을 기다리던 중, 밤하늘 별너머 걸어오는 어린왕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난다.

두 번째 공간 '어린왕자의 우주여행'에선 관람객이 직접 어린왕자가 되어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6행성을 다니며 각각 권력욕, 허영심, 소유욕, 허무주의, 이론주의 등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지구에 내려온 어린왕자를 만나 여우와 길들임에 대해, 자신의 장미꽃의 소중함에 대해 듣는다. 또 네 번째 공간 '어린왕자 미공개 삽화전'에선 생텍쥐페리가 최초로 습작했던 어린왕자와 인물들의 드로잉 등 그의 그림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다섯 번째 공간에선 어린왕자 카페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왕자카페는 카페와 스토어, 전시를 하나로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와 함께 어린왕자 캐릭터를 살린 음료 및 베이커리, 아트팬시 문구 등 다채로운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올리비에 다개이 생텍쥐페리재단 이사장(생텍쥐페리 증조카)은 "어린왕자의 탄생배경을 알 수 있고 관람객들이 직접 어린왕자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행사가 전남 보성에서 열려 기쁘다. 이 전시를 통해 세대 간 간극을 좁히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금강 스님과 오치규 교수의 '좋은 만남'

5월 3~16일 '내 마음에 탑 하나II' 展

한 폭 종이 위에 펼쳐진 글과 그림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답다. 여기에 대중을 위한 큰 뜻이 담긴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 추진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다.

미황사 금강 스님(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상임대표)과 오치규 충남대 교수는 '내 마음에 탑 하나II' 展을 5월 3~16일 인사동 갤러리 나우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추진 기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첫 번째 전시가 개최된 바 있다.

전시 작품은 오치규 교수의 그림에 금강 스님이 달라이 라마, 틱낫한, 법정 스님 등의 말씀들을 글로 적어 완성했다.

6일 오후 2~5시엔 금강 스님과 담소, 13일 오후 3~6시엔 금강 스님과 자유로운 이야기 '톡톡톡' 시간도 진행된다. (02)725-0930

박아름 기자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돼지감자,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췌장 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벽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 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금강정사) 대리점모집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 웅 합장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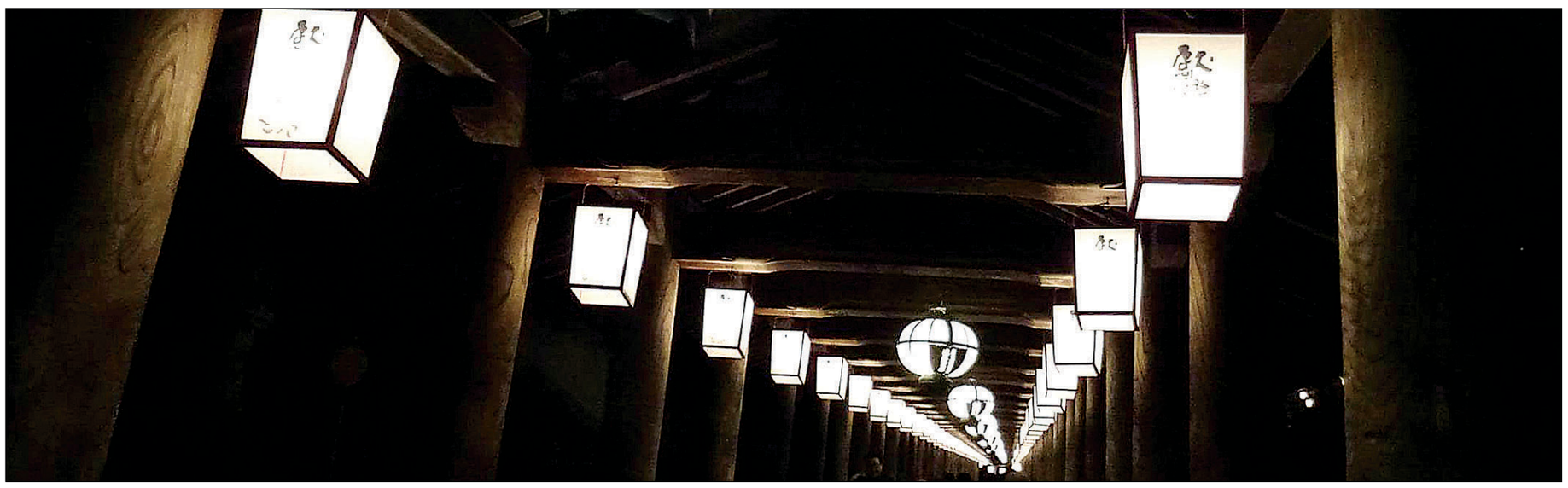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관음보살 가피, 등불 따라 펼쳐지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⑦ 하세데라 · 무로우지



하세데라는 꽃과 더불어 관음신앙으로 유명하다. 이를 보여주는 행사가 12월 31일부터 1월 1일로 이어지는 관음 만등회 행사다. 관음 만등회의 등불들이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모습은 장관이다.

꽃 · 관음신앙 유명한 '하세데라'
신년 '관음 만등회' 풍경 장관
日서 보기드문 산사 '무로우지'
여인 금제 없던 신성한 진언사찰

하세데라(長谷寺)

하세데라(長谷寺)는 꽃과 함께 관음신앙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하세데라'나 '하세칸논(관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라 하세데라 외에도 같은 이름의 하세데라가 몇 곳이 더 나온다. 하지만 꽃과 관련된 사찰은 나라에 있는 하세데라가 가장 유명하다. 하세데라 관음신앙이 이 만큼 일본 전국으로 전개된 것이다. 아마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세데라라고 하면 가나가와현 가마쿠라(鎌倉) 하세데라가 떠오를 것 같다.

하세데라 창건은 7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스카 가와라데라(川原寺) 승려인 도묘 쇼닌(道明 上人)이 덴무(天武)천황을 위하여 국보 '동판법화설상도(銅板法華說相圖)'를 만들고 삼중탑을 건립해 사찰을 창건했다. 이것이 하세데라의 시작이다.

나라 시대에 들어 쇼무(聖武)천황 발원으로 도쿠도(德道)상인이 가람을 조영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십일면관세음보살상(十一面觀世音菩薩像)을 봉안했다. 733년에 명승 교키(行基) 스님을 도사(導師)로 관음의 개안(開眼)이 진행되었다.

하세데라는 건립 후 화재로 몇 번이나 피해를 입었다. 그때마다 소실된 관음보살상의 남은 일부분을 새로 만든 보살상 내부에 넣어왔기 때문에 영험함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 현존하는 관음보살상이 16세기에 제작된 것이며 높이 약 10미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돌로 만든 대좌 위에 서서 왼손으로 물병을 들고 오른손에 염주를 쥐고 석장(錫杖)을 갖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어디든지 걸어간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이런 모습의 관음보살상이 드물어 이를 하세데라식(式)이라고 부른다.

〈법화경(法華經)〉에 여인 왕생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어서 그런지 관음보살상은 특히 여성으로부터 신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하세데라를 찾는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비롯한 헤이안 시대의 유명한 문학 작품에도 하세데라가 등장하는데 많은 참배객이 하세데라에서 묵어 기도했다고 한다. 옛날 사람에게는 꿈을 꾸는 것이 신불과의 교류를 의미하고 관음의 가피를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세데라 순례와 더불어 여러 관음 영장을 참배하여 공덕을 얻겠다는 참배객이 늘어 헤이안 시대 후반에 33개의 관음 영장이 만들어져 순례가 시작되었다. 하세데라를 포함한 이 순례를 '사이고쿠33쇼준레(西國三十三所巡禮)'라고 부른다. 사이고쿠는 현재 오사카, 교토, 나라, 시가, 와카야마, 효고, 기후에 있는 33개 관음 신앙 영장의 총칭이다. 사이고쿠 관음보살상을 순례 참배하면 이승에서 범한 여러 죄가 다 소멸되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33'이란 숫자는 관음이 중생을 구제할 때 33개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신앙에 유래한다. 지금도 순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사찰 인장이 찍히는 노트를 들고 사찰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다.

꽃이 예쁜 시기 외에도 내가 추천하고 싶은 하세데라는 새해를 맞이하여 진행되는 '관음만등회(觀音萬燈會)'라는 행사다. 12월 31일 밤에 등롱, 등명이 불을 밝히면 사찰은 형형색색 불빛으로 장엄된다. 해를 넘겨 새해가 될 직전에 법회가 시작되고 관음보살상이 봉안된 정당(正堂) 앞에 있는 예당(禮堂)과 예당에 설치되는 무대(舞台)에서 많은 참배자가 예불하고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한다.

일본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사찰이나 신사에 참배하며 1년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하쓰모데(初詣)'라고 부른다.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대학교 합격 등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신불 앞에서 기도한다. 12월 31일 밤에서 1월 1일 아침까지 전차도 밤을 새워 운행한다. 기회가 되면 이 시기에 맞춰 일본 사찰을 방문하고 하쓰모데를 체험해 볼 것을 권한다.

무로우지(室生寺)

지금까지 소개한 사찰들은 주로 평탄한 곳에 있고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찰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로우지는 좀 다르다. 기차와 버스를 타고 산을 올라야 만날 수 있는 산사(山寺)다.

긴테쓰 하세데라역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무로우구치오오노(室生口大野)역이다. 거기서 한 시간에 한 번 밖에 없는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무로우지에 도착한다. 산 속에서 계곡을 따라 가는 버스 차창 풍경을 보면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



무로우지 오중탑 전경. 올라가는 길에는 석단과 양쪽의 석남꽃이 조화를 이룬다.

무로우지의 '무로우'는 신이 계시는 신성한 곳을 말한다. 이런 신성한 무로우에는 옛날부터 여러 신앙이 있었다. 특히 수원지(水源地)로서의 수신(水神) 신앙을 중심으로 무로우는 청우(請雨)의 영지가 되었다. 이곳에 대륙에서 용(龍) 신앙이 들어왔다. 무로우에서 화산 활동으로 생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이 용왕이 사는 곳이며 용이 비를 비롯한 자연 현상을 일으킨다는 신앙이 전개되었다. 용이 사는 동굴을 '류케쓰(龍穴)'라고 부르게 되며 수신 신앙이 류케쓰 신앙이 되었다.

8세기 후반 황태자 야마베노(山部) 천왕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기원해 덕이 높은 승려 5명이 무로우 류케쓰에서 기도했더니 황태자가 쾌유했다. 승려의 최고 책임자가 고후쿠지 승려인 겐교(賢璟)였다. 훗날 황태자는 간무(桓武)천황이 되고 겐교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무로우에 사찰을 창건하게 했다. 그런데 창건 계기가 비록 천황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겐교는 영지로서의 무로우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로우가 산악 수행의 거점이 될 것을 목표로 했었다고 한다.

무로우지 창건은 겐교이고, 조영은 주로 겐교 제자인 슈엔(修円)이 했다. 무로우지는 이렇게 고후쿠지 승려 두 명이 중심으로 조영된 관계로 고후쿠지 별원(別院)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고후쿠지 승려들의 산악 수행 장소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상종(法相宗), 진언종(?言宗), 천태종(天台宗) 등 종파를 넘어 이색적인 승려가 잇따라 입산해 무로우에서 수행했다. 헤이안 시대 중기에 들어 무로우지는 고후쿠지 지배를 받으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진언 밀교화 되었다. 세력이 강한 본사(本寺)인 고후쿠지는 가마쿠라 시대 후반에서 세력이 약해지고 무로우지에게의 영향력도 약해졌다. 이에 따라 무로우지는 진언 밀교 사찰로서 면모가 더 강해지게 됐다.

무로우지에 관련된 수식어 중 하나가 '뇨닌고야(女人高野)'이다. 이는 진언 밀교 근거지인 고야산이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던 것과 달리 여성을 받아들이는 사찰로서 생긴 표현이다. 이후 20세기 들어 고야산에 여인 금제가 없어진 후에도 뇨닌 고야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어 있다.

가이드북이나 팜플렛에 자주 등장하는 무로우지 사진은 오중탑이다. 오중탑에 올라가는 길에는 석단(石段)과 양쪽의 석남꽃이 조화를 이룬다. 무로우지 오중탑은 일본에서 가장 작은 오중탑이고 호류지 오중탑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다. 1998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어 복원 공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로우지 오중탑이 800년 무렵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한 산세에 따라 건물이 세워진 무로우지에서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지 위에서 내려다보는가에 따라 오중탑의 모습이 달라진다. 다양한 오중탑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이 산사 무로우지 답사의 즐거움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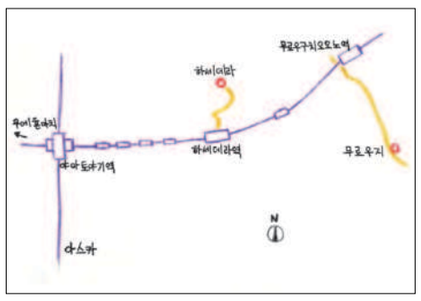
가장 위에 위치하는 오쿠노인까지 가려면 가파른 석단을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무로우지 답사는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무로우지 답사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건강하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하세데라와 무로우지 교통 안내

오사카에서 하세데라나 무로우지로 갈 때에는 우에혼마치(上本町)역 지상에 있는 플랫폼이나 쓰루하시(鶴橋)역에서 긴테쓰 오사카선을 타면 된다. 도다이지, 고후쿠지 방면으로 가는 긴테쓰 나라선을 타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오사카에서 떨어져 있고 교통도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하세데라, 무로우지를 답사하기로 한 날에는 다른 곳을 찾아 가는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에 두 곳에서 느긋하게 지내면 힐링이 될 것이다. 사찰 근처에 식당이 몇 군데 있다. 무로우지 주변에 있는 숙박 시설에서도 숙박을 하지 않아도 식사를 할 수 있다.



하세데라 모란꽃, 무로우지 석남꽃이 피는 시기에 하세데라, 무로우지를 잇는 임시 버스가 운행된다. 4월 22일~23일, 4월 29일~5월 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양쪽에서 30분마다 있고, 소요시간이 약 45분이다.





위패몰 .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 051) 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오늘의 무게

오늘이 있기까지 바람은 얼마나 불었을까. 꽃은 얼마나 피고 졌을까. 얼마나 많은 새들이 하늘을 날았고, 풀잎엔 얼마나 많은 이슬이 맺혔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사가 있었을까. 오늘에 서있는 우리가 오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의 고단함이 어디서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는가. 오늘이 쉽지 않은 까닭이리라. 남은 날들을 모두 합쳐도 오늘의 무게를 이길 수 없는 까닭이리라.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⑧ 노예에서 왕비가 된 황두아가씨

善行이 습관되면 복은 저절로

"노예의 신분이지만 마음씨 곱고, 친절하거든. 얼굴도 예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사위성 야야달(耶若達) 장자의 집에서 부리는 황두(黃頭)라는 여종이었습니다.

야야달장자는 사위국의 서울, 사위성 가까이에 말리라는 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여종 황두에게 말리동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여자이지만 너는, 부지런하고 착해서 동산지기 노릇을 잘 할 것같구나."

"예, 장자님 잘 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황두는 동산지기가 된 그날부터 날이 새는 시간에 아침밥을 싸가지고 장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동산에서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동산으로 꾸며보자."

황두는 동산에다 예쁜 화초를 심고,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푸른 나무를 잘 가꾸어 꽃과 그늘이 좋은 동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황두는, 장자의 집에서 자기 몫으로 나누어주는 아침밥을 가지고 말리동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멀리서, 어떤 도인이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밥을 저 스님께 드리자.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다.'

황두는 바삐 가서, 가지고 가던 밥을 도인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산으로 가서 남은 밥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밥을 보시했던 그 도인이 부처님이셨지만, 황두는 스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몹시 덥던 어느 날,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말리동산의 손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여자 동산지기 황두는 누구에게나 하듯이 친절히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서 앉게 한 다음, 널따란 연잎에다 물을 길러 왔습니다.

"어르신, 목이 마르시지요? 물을 드세요."

"목이 마르던 참에 아주 고맙소."

손님은 황두가 매우 마음씨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라는 생각을 하는 듯했습니다. 모습이 단정하고 예쁘다는 생각도 하는 듯했습니다.

"발을 씻으셔야죠. 물을 길러 오겠습니다."

황두는 더 큰 연잎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제가 발을 씻어 드리죠"하고 손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고단하신데 누워서 쉬시지요." 씻은 발을 닦아준 다음 자리를 깔아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워 쉬면서 손님은 생각했습니다. '저와같이 친절하고 총명한 여자는 처음 본다. 사람의 마음을 척척 아는군.'

그러다가, 손님이 물었습니다. "동산을 잘 가꾸었군. 여자 혼자서 넓은 동산을 가꾸고 돌보기가 힘들 텐데, 어떤가?"



그림 · 강병호

그런데, 아가씨의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좋은 분들만 동산 구경을 오시는 걸요."

그 말에 손님은 아주 감동을 하는 듯했습니다. "아가씨는 뉘집 딸인가?"

이번 대답은, 더더욱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야야달장자를 상전으로 모시는 여종입니다."

"그래?" 누웠던 손님이 그 말에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사위국 바사닉왕이오. 야야달장자를 만나야겠소."

황두도, 말리동산을 찾은 손님이 사위국의 바사닉왕이라는 걸 알고 아주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마침, 왕의 신하들이 왕을 찾아서 숲에 이르렀습니다.

"수레를 빨리 몰아서 야야달장자를 모셔 오라!" 급한 명령이어서, 장자가 급하게 왔습니다. "장자! 이 사람이 장자의 여종이 맞소?" 엎드려 절을 하는 장자에게 왕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님!"

"짐이 데려다가 왕비를 삼으려하는데 장자의 뜻이 어떻소?"

"종의 신분인데 어찌 국모를 삼는다 하십니까?"

"노예의 신분이라 해도 이 아가씨는 충분한 국모의 자격이 있소. 그걸 내가 보았소. 노예는 사고 파는 것이니, 값을 말하시오."

야야달장자는 한참을 생각다가 입을 떼었습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황금 천 냥은 받아야겠습니다만, 어찌 대왕님께 값을 받겠습니까. 거저 바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소." 바사닉왕은 그 자리에서 황금 천 냥을 야야달장자에게 주었습니다.

궁에서 왕비의 예복과 영락을 가져오게 하여 몸을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레를 타고 사위국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부터 왕궁의 예법을 익히고, 필요한 학문과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얼마 뒤, 나라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왕비가 된 황두는 말리부인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말리동산에서의 인연을 생각하여 바사닉왕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말리부인은, 말리동산 오는 길에 아침밥을 나누어서 보시한 인연으로 귀한 몸이 된 것을 알고, 그 도인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도인이 부처님이셨습니다.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당장 부처님을 찾아가 예배하고 문안하시오" 하고 서둘렀습니다. 5백 수레를 장엄하게 차리고, 5백 시녀를 데리고 부처님을 보러 오가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아시는 부처님은 말리부인 일행을 위해 설법을 하시고, 부인의 전생 인연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말리부인은 바사닉왕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우바새, 우바이가 되었습니다.

출처: 사분률 18권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세로 32㎝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